



변화와 웅배 향한 대장정의 첫발을!

李長茂총장에 거는 기대 크다

지난 8월 1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제24대 李長茂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李長茂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21세기 신문명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인 프로네시스(phronesis)의 함양과 더불어 지적 수월성의 함양이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서울대는 담장을 허문 열린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기본을 튼튼히 하고 그 기본을 토대로 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강화하는 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3면)



관악출주

대학은 글로벌 경쟁시대 지식경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다.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학교가 작년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세계 1백위권 대학에 진입했다는 건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이 절망한 盧武鉉시대에 국민적 기대를 모으기에 족한 성과였다. 李長茂 서울대 제24대 총장의 임무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가 취임 첫날부터 매달려야 할 과제는 서울대를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도약시키는 일이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005년 서울대를 세계대학 랭킹 93위로 평가했다. 전임 鄭雲漢총장은 서울대를 "손색없게" 만든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회고했다. 그의 업적은 평가할만하다. 이제 李長茂총장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업적을 이루기 바란다. 서울대를 '손색없는 대학'에서 '세계 최고 대학'으로 웅비시켜야 한다. 향후 그의 재임 4년 중 서울대는 월드컵의 한국축구처럼 우선 '세계 32강' 반열에 올라야 한다. 한국을 '1인당 GDP 3만 달러, 세계 8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

서울대 '세계 32強'에 올라라

리지는 국민적 포부에도 부합하는 명제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국민의 꿈과 포부를 키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

'세계대학 32강' 도전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 그렇다고 밤하늘의 별처럼 딸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더 타임스의 랭킹에 의하면 세계 32강 가운데 아시아 대학은 중국 베이징대(15위), 일본 도쿄대(16위)와 교토대(29위), 싱가포르 국립대(22위) 등 4개가 들어있다. 사실 한국 최고의 명문으로서 서울대 93위는 부끄러운 성적표다. 서울대는 더 분발해야 마땅하다. 2005년 93위는 전년도 1백18위에서 무려 25단계나 뛰어오른 것이다. 이런 꺾박질 상승세를 지속한다면 '32강의 꿈'은 곧 현실로 다가설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 세계 1백대 대학 가운데 미국이 30여 개를 차지해 가장 많다. 프랑스는 5개, 독일은 1개뿐이다. 세계2차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대학들은 유럽대학에 뒤졌다. 미국의 이런 역전승은 무엇보다도 대학 간 치열한 경쟁과 국가의 막대한 투자 덕분이다. 지금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서울대 폐지론'이 말해주듯 이 정권은 평준화 망상에 사로잡혀 '일류'를 公敵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다. 이 정권 아래서 '서울대를 최고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미려한 짓임지 모른다. 어이없게 총장직을 걸고 싸워야 할 과제일 수도 있다. 새 총장에게 넘치는 의욕 못지 않게 투철한 소신과 집념을 당부하고 싶은 건 이 때문이다. (好)



3회 동문 바둑대회...2백50여명 참가

(관련기사 5면)

이번호 40면 발행

회비납부자 명단 33~38면

●트리나무광장

정치인을 때리는 코미디는 수없이 많다. 한강물에 국회의원, 신부, 학생 등이 빠졌는데 누굴 제일 먼저 건져 올려야 하는냐는 질문의 정답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최근에 들은 또 한가지 유머는 이렇다. 모기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암컷 모기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 드러눕게 됐는데, 하필 여의도를 다녀온 후 그렇게 된 것이다. 진단 결과 여의도 국회에 들러 식사(?)를 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식품(파)을 먹었다나?

정치코미디가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면 즐겁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면 그렇지 않다. 때로는 광장한 스트레스가 된다.

최근 국회에서 일어난 인사 청문회 풍경이 그 하나다. 각료 후보에게 많은 사람은 세균 폭탄발언으로 화자였던 청와대 고위직 출신이었다. 그의 발언과 정책은 지난 5·31 지지제 선거에서 역사상 보기 드문 여당 참패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야당측으로서는 고집과 여당측으로서는 발칙한 일이다. 그런데도 그날 여당의원을 가려낸 이런 일이 쏟아져 나왔다.

A의원: 알아보니 ○후보자의 자녀 외교 입학문제는 아무 하자가 없더군요. 외교 편입은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히 개혁적이라는 그 후보의 자녀 2명이 모두 외교에 편입했고 그중 하나는 외교시험에 낙방한 후 다른 교고에 다니다 3일만에 그 외교에 전입하는 '신출귀몰' 상상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B의원: ○후보자는 이번에 보니 강성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총리가 되시면 당정협 의라도 잡혀 주십시오. (하급 벼슬아치가 정승한테 하는 식?)

이쯤 되면 아무리 잘 봐주려 해도 코미디 이상이 못된다. 국

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우리 국민 누가 이런 질문을 원했던 말인가!

최근 부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도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북측 대표라는 사람은 장준영의 선군정치 덕분에 남하의 덕을 보고 있다고 호언하면서 빨리 조공을 바치라는 식으로 유박질했다. '보라! 우리한테 핵과 미사일이 있으니 당신들이 편히 사는 것 아닌가'라는 뜻일 게다. 남북정상회담에 4억불, 금강산



丘月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前연립뉴스 상무
본보 논설위원

임경로 4억4천만불에다 비료와 쌀까지 대주고 그동안 얼마나 고고고분했었는데 이렇게 나오다니! 눈치 빠른 외국인들은 기막힌 코미디 영감을 얻었을 것이다.

게다가 휴전선에 쌍방 1백만 대군이 서로 총과 포를 겨누면서 비참한 경계를 하고 있는 터에 미사일만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고집은 또 무엇인가. 통교반점을 중국국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더니...

정치코미디

문물칼럼

"지식은 가장 민주적인 힘의 원천"이라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지적은 지식기반사회의 본질을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필자는 과학기술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대사회의 모든 부문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인간계몽지도 발효, 줄기세포연구 파동, 세계 최초의 와이브로 개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과학관련 소식이 신문과 첫면을 장식하는 틈틈이로 등장할 정도로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달이 환경과 그에 의한 생태계 파괴와 재해 발생의 주범이라는 오해도 널리 퍼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어떤 수준일까?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일반 국민은 물론

다, 과학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가치관과 신념을 공유하며, 합리·효율·정의의 과학정신을 행동과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회정도를 말한다.

과학문화는 과학과 대중, 과학과 사회가 어떻게 만나고 의사소통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태도, 과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과학기술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 등은 과학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인프라다.

과학과 사회의 의사소통을 유럽에서는 과학과 사회의 대화(dialogue), 미국에서는 대중의 과학이해(understanding)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국민 모두가 과학을 배우고, 참여하고, 즐기면서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를 이루자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를 통해서 과학과 사회의 단절, 과학자와 대중간의 괴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과학자들의 맘의 결과이지만 과학자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위한 공공재(public goods)이다.

필자는 평생을 생명과학 연구와 후학교육에 바쳐오다가 지난해에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일하고 있다. 주변에 과



羅素善
(약학67-71)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과학문화는 선진사회의 기반

상당수의 지식인도 과학기술의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이 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의 척도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과학문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학문화는 과학도 음악이나 미술처럼 사회문화의 일부로 인식돼야 한다는 선진사회의 개념이

학자가 공공기관 CEO로 변신한데 대해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이 두 가지 일이 별개의 일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가 대중과의 의사소통에 나설 때 과학문화의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과학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 내일이 발전하는 밝은 과학한국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행복한 꿈이다.

관악시단

獨島

孫海鎭(장시화67-75)
농민신문 논설위원·한국현대사학회 부이사장

[1]
동해 배들은 댕 처음 네 차지다.
아침 이슬 만이려고 목청 맑은
갈매기는 네 차지다.
물장구치며
다박을 팔면 아랫도리 파도에 말져두고
비상을 꿈꾸는 너
불이소리 獨.獨.獨.
사우치는 외로운도
모두 네 차지다.
[2]
東夷族의 強弓
시냇물에 귀 빠히던
기아민족의 凶惡한 서릿바람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아니래도
네의 머언 조상은 배달져려
누만년 치성드려 찰지 받은
만족의 외동아들.
혈통도 昭著도 확실하니
심을 말려듯 장아대는
패를 풍기는 연강생심 아닐진대
어느 날 배에 의봉이가 나타났다.
이쯤까지 다계사(竹島)로 바꿔 놓고
어름뽕 호로도 나혼자(日本海)로 물려놓고
친자확인 소송이라도 하지는구나.
한때 네 조상들이 무능하여
四色震聲으로 한 세칠 버린 사이
壬辰, 丁酉, 乙卯年 북새풍에
안마당 내주고 골뎀하던 사이
韓半島를 뺏아놓은 倭는 義士로가
바로 너라는구나.
으름 말발 괴한 재발에서
強호도 아니고 和호으로
넌 배가 너라는구나.
세력을 사림을 한 모퉁이에서
주위는 업둥이가 너라는구나.

[3]
건암군이 죄리만
무능함도 크나 큰 죄
원호 저려의 昭赫함도
알리안신배 회감아
만주법망 누비던 말굽소리도
귀 멀고 눈 멀어 이런 다아 있었느니라.
북남망도 역사도 족모도 다아 있었느니라.
김부식이 김충추가 이성계가
찬물을 받아먹고
多勿 多勿 해야 나오리라.
아름다운 잃어버린 天孫의 땅.
건암중도도 天刑 어리석음도 天刑
삼승 군성만 맺구쳐려 켜서
큰 나라 섬기다 거덜낸 우리네 살림살이
萬世一系 신묘한 등갈승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삼나라
때 말 구려 역사 강해 두고
미꾸라지 먹고도 용트림하던 倭
계칠 당한 廣開土大王과
七支刀의 찰날 속에 들고 있다
용서하라 독도여!

우리의 무능함들
삼나라군성 하나 떠맡아 못 다스리는
아름다운 약물을 용서하라.
떨어진 한반도 남과 북이
한반말로 호르지 못하는 용종함
주도록 부끄럼하구나.
한반도의 막내아.



林光洙회장은 李長茂총장께 모든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24대 총장 李長茂박사 취임식

李총장 “기본 토대로 적응력 강화” 강조
林회장 “나누고 베푸는 제도 시행” 당부



전임 鄭雲煥총장이 신임 李長茂총장(左)에게 대학상징열쇠 전달

지난 8월 1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개최된 제24대 李長茂총장 취임식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전임 鄭雲煥·李賢宰·朴奉植·趙完圭·李壽成·鮮于仲皓·李基俊·鄭雲煥총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 李長茂총장의 취임사에 이어 전임 鄭雲煥총장은 축사에서 “李총장은 그동안 공대 학장과 여러 학회의 회장 업무를 수행하며 뛰어난 학자임과 동시에 건강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 검증받아 왔다”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서울대가 세상을 밝히는 지식의 전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鄭雲煥총장 퇴임식

모교 鄭雲煥총장이 지난 7월 19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4년간 수행해 온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鄭총장은 임사에서 “총장으로 일한 지난 4년간 지식인에 대한 사회의 존경심이 식어 있음을 도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李總장에게 “서울대인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풍토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사 요지 참조)

지난 7월 20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임 李長茂총장은 67년 모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도미해 메이이오와 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76년부터 모교 공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현재 국립과학추진위원회, 신재생에너지위원회, 국가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처에서 목격했다”며 “서울대인들은 학문적 역량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통찰을 사회에 제시함으로써 지식인에 대한 존경과 전문지식에 대한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는 “하절기부터 한조력을 키워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南)

李長茂총장 취임사 <요지>

대한민국의 지성과 학문을 대표하는 서울대학교의 총장을 맡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이자 막중한 책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60년 전 최초의 국립종합대학교로 설립된 서울대학교는 전란과 정치적 격동 속에서도 본연의 임무를 지켜 왔으며 1975년 실질적인 종합화 이후로는 연구 중심대학을 목표로 한국의 학문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세계적 명문 대학들과 경쟁하는 초일류 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고 또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명문대학이 걸어온 수백 년 역사를 볼 때 60년 만에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앞만 보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온 가운데 이론 것도 많지만 보다 이론 것도 실천해 있습니다. 지식 함양에 급급한 나머지 실천적 지혜인 프로네시스(phronesis)를 더듬는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했지만 나누고, 베풀고, 희생할 줄 아는 리더 육성에는 미흡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모래알 같은 학문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유리된 낙원한 지식인이나 편견과 아집으로 굳어 버린 편협한 지식인의 양성소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제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려는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을 배려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젊음과 정열이 불타오르는 건강한 캠퍼스 안에서 책 속의 이론을 살아 생동하는 지식으로 변화시키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지도자 양성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더욱 심혈을 기울일 때가 된 것입니다. 21세기 신문명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인 프로네시스의 함양과 더불어 지적 자율성과 함양이 아울러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식기반사회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폭발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에 존재하는 개인과 집단의 역할이 변해 왔습니다. 이제 물리학적 기계론의 패러다임도 존속하지만 생물학적 유기체론의 패러다임도 존속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과학의 변화에 따라 학문이 변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대학의 위상과 역할이 변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과학이 단순계를 넘어선 복잡계를 외면할 수 없듯이 학문은 융합의 세계를 이끌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인간과 우주를 천착하는 신학문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미래의 대학과 학문의 변화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첫째, 담장을 허문 열린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학문 분야간의 장벽을 허물고, 대학과 사회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국가간의 장벽을 허물며 진정한 지적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본을 본떠서 하고 그 기본을 토대로 급격한 시대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강화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적응력은 바로 기본의 강화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대학교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보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보다 깊이 생각하는 심층적 사고와 다양한 지평에서 넓게 생각하는 다각적 사고 그리고 이질적인 요소들에 통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교육의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林光洙동창회장 축사 <요지>

먼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서울대 총장에 취임하시는 李長茂박사에게 30년 서울대 동문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교는 개교 후 극심했던 혼란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문의 정도를 굳건히 지키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 제1의 국민의 대학, 민족의 대학으로 성장 발전했음을 물론이고, 지금은 세계 속의 명문대학을 지향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격변의 전환기에 취임하시는 李長茂총장님!

확고한 학문적 소신과 후련한 인품을 갖추신 총장께서는 모교 구성원과 30만 동문 그리고 온 국민이 지켜보며 보내고 있는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발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總장께서 취임 후 가지신 인터뷰에서 서울대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감동을 주며, 인정받는 것이었으면 대학교로 만드신다고 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각오와 의지를 밝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인들이 국민과 더불어 더욱 나누고 베풀며 협동하는 Noblesse Oblige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풍토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쌓여질 때 서울대인에 대한 사회 일각의 그릇된 편견이 불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모교의 지식의 권위를 잘 지키고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문의 자유는 숭고한 것이며, 이를 위한 학교 운영의 자율화는 양보할 수 없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자유와 같은 고귀하고 값진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대학의 주체인 교수들과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의 확고하고 단호한 결의와 행동이 모아질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교가 세계 속의 명문 대학으로 거침없이 도약해 나가기 위해 자율성에 바탕을 둔 법인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협의의 과정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교 교수님들의 연구실적과 업적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에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30위권 SCI 순위, 세계의 석학들이 평가한 공대대 자연대의 미국대 기준으로 10위 내지 30위권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의 교수님들의 연구실적과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 유수 명문대학과 학술기관과의 국제협력력이 더욱 풍부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국의 Harvard대학은 25소원의 발전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서울대는 불과 2천4백여원밖에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게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사회와 국민의 후원을 기대하며 총동창회도 모교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신임 총장님과 함께 발전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누가 조금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믿습니다.

새 출발을 하시는 신임 李長茂총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모교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李總장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역량과 위안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모교와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3회 바둑대회

선후배간 팀워크 우리가 최고!



2006년 동문 바둑대회가 마포 동창회관에서 개최됐다.



林光洙회장은 "승부를 떠나서 도덕과 인격을 연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7월 8일 서울 마포 동창회관에서 동문 및 재학생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 최강조·A조·B조(이하 스위스리그)·재학생조(치수제 스위스리그)와 단체전(병형 토너먼트)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개인전은 5국, 단체전은 4국을 치러 승자를 가렸다.

사회대 동창회 단체우승
개인전에 李鍾堯등문

이번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朴熙白·孔大權부회장, 許 璉서무총장, 모교 李泰秀대학원장, 李仁濟(형제 68-72)국회의원, 선수로 참가한 姜秉求(보대원 69-71)보대원동창회장, 崔奉成(법학 68-72)국회의원을 비롯해 洪鍾廣(법학 64-68·프로 9단)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인 申秉堯(미학 73-78)SBS 논설위원, 朴治文(국문 68-79)중앙일보 수석전문위원, 南治亨(영문 94-98·프로 초단)명지대 바둑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특히 SNU 웨딩플래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金基燦(AMFPR 1기)서리별 대표가 경품을 제공했으며, 흥행에서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여류 프로기사 黃 焰(프로 4단)씨를 초청해 동문들과 지도대국을 펼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대회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

林光洙회장은 대회를 통해 "오늘 대회에서 승부보다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며 조화 속에서 함께 발전해 가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연마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틀러 "마포에 정착빌딩이 건립되면 바둑대회를 같이 선후배 동문들이 대회를 나누어 친목을 다지는 등화회를 발발해 동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모교 鄭雲泰총장을 대신해 李泰秀대학원장은 축하사서 "서울대가 세계 수준의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하도록 마음의 심연에서 지혜롭게 대화하는 수업을 본받자"고 전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은 대회 요강을 남독한 후 "바둑은 가로 19줄 세로 19줄, 3백61점의 무대에서 흑과 백이 생존경쟁을 벌이는 경국의 대 경관이자 서울대인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현실적인 행동지표"라며 참가자들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칠 것을 당부했다.

단체전 결승전에서 작년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사회대동창회

합 속에서도 3국에서 1패를 인계한 사회대동창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국에서 승리해 공동 3위에 올랐다.

상대 66학년 동기들로 구성된 쌍용기우회는 첫 대국에서 패하고 내리 3승을 거둬 공동 3위팀과 동률을 기록해 갑부상을 받았다.

이번 우승한 사회대동창회팀은 林光洙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전달받았으며, 상패와 함께 1백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온라인 바둑 사이트 1년 이용권 등을 받았다.

申秉堯심사위원은 막강한 실력을 자랑한 결승전 진출팀에 대해 "작년과 출전선수가 같은 사회대동창회팀은 80년대 후반 위주로



林光洙회장(中)이 사회대팀에게 단체전 우승기와 기증패를 전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과 최강조 우승을 차지한 李鍾堯등문(右)

관악캠퍼스 바둑부 출신 동문인 대부분이며, 바둑부연합회팀 역시 재학생과 바둑부 출신 동문들로 구성돼 두 팀간의 결승대결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개인전 최강조 마지막 대국에서는 작년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李鍾堯(자원공학 79-83)동문이 5전 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1회부터 3회까지 최강조 우승은 모두 공대 출신에게 돌아갔다.

이번 李鍾堯문은 상패와 함께 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온라인 바둑 사이트 1년 이용권 등을 받았다.

한편 최강조 宣石機(중문 75-79)동문은 3국에서 李鍾堯동문에게 패했으나 마지막 대국을 승리조 장석해 준우승을 올렸으며, 洪成允(사양사 73-78)동문은 4국까지 전승을 달리며 여세를 몰았으나 5국에서 李鍾堯동문에게 아쉽게 패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개

인전 재학생조 우승자인 조재근(수학교육 04입)군은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참가선수 중 최고령자인 魏在勳(의학 52-58)동문은 올해 84세로 개인전 B조에 출전, 준우승을 차지하며 노년층을 과시했다. 단체전 준우승을 한 바둑부연합회팀의 오경환(경영)군과 개인전 재학생조 3위를 차지한 신연철(전기공학)군이 모교 신입생으로 출전하는 등 선후배가 한데 어우러져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멋진 기량을 펼쳤다.

또 대전 관악기우회를 비롯해 공대·문리대·법대 56학번으로 구성된 서풍OB팀, 법대 58학번 출신모임인 청조회와 쌍용기우회, 호서사 등 다양한 팀이 출전해 동문간 끈끈한 정을 나누며 시종일관 대회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

黃 焰·南治亨기사 초청
魏在勳동문 84세로 참가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黃 焰사와 남治亨교수가 1국부터 5국까지 자리를 지키며 모교 李泰秀대·학원장, 朴熙白·孔大權부회장, 李仁濟·崔奉成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과 지도대국을 펼쳐 우먼파워를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 진행을 맡은 한 국기원의 박정우 사업기획팀장과 스포츠들이 마지막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재계사이버기원에 서 운영하는 온라인 바둑사이트 '사이버오'에서 온라인 바둑사이트 이용권 협찬과 더불어 생중계를 맡았다.

단체전·개인전 시상식 시상식이 끝난 후 본회 林光洙회장이 모교 바둑부 회장인 남갑관(전기공학 05입)군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참가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지갑을 비롯해 정품 추첨행사서 노트북, 드림세탁기, USB 메모리, 진공청소기, 압력밥솥 등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제3회 바둑대회는 2007년 6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表)

각 부문별 수상자

▲단체전

△우승: 사회대동창회팀 尹鍾堯(정치 74-78)·吳斗機(국제경제 82-89)·安成文(정치 83-87)·鄭雲泰(경제 85-89)·金 顯(경제 85-90)·金鍾煥(경제 85-92)동문.

△준우승: 모교 바둑부연합회팀 尹鍾堯(컴퓨터공학 05-02)·尹鍾堯(생명과학 02-06)동문, 지성환(바이오시스템 99입)·김형근(컴퓨터공학 01입)·오경환(경영 06입)군.

△공동 3위: 생대동창회팀 金基沃(농생물 71-78)·金根洙(임산가공 77-84)·李在喆(농업토목 86-91)·洪鍾善(식품생산과학 92-00)동문, 인문대 출신팀 仁祐榮(중문 62-67)·朴治文(국문 68-79)·李敏(사양사 73-80)·申秉堯(미학 73-78)·姜鎰根(물문 82-87)동문, 갑부상: 쌍용기우회 金相明(경제 66-70)·延健昊(상학 66-70)·張仁相(경영 66-70)·洪鍾堯(상학 66-70)·張泰賢(상학 66-70)동문.

▲개인전

△최강조 우승: 李鍾堯(자원공학 79-83)동문 △준우승: 宣石機(중문 75-79)동문 △공동 3위: 柳東烈(국어교육 71-75)·洪成允(사양사 73-78)·柳忠均(수학교육 82급)·徐炯勳(물리 84-89)동문.

△A조 우승: 魏在勳(화학교육 72-80)동문 △준우승: 千韓宇(경영 79-83)동문 △공동 3위: 崔安基(지리교육 70-79)·劉智振(전기공학 72-78)·鄭主烈(금융공학 73-80)·徐炯勳(물문 74-78)동문.

△B조 우승: 尹鍾堯(화학교육 73-77)동문 △준우승: 魏在勳(의학 52-58)동문 △공동 3위: 安昌燮(사회교육 01입)·朴洙熙(체육교육 05-70)·張基鎭(상학 66-74)·金昇俊(농학 74-85)동문.

△재학생 우승: 조재근(수학교육 04입)군 △준우승: 최원호(기계공학 02입)군 △공동 3위: 조장식(응용생물화학 00입)·김남근(전기공학 05입)·방현준(경제 01입)·신연철(전기공학 06입)군.

뉴욕지부 李俊 행동문 10만불 쾌척

“교육의 중요성 알리기 위해 기부”

지난 7월 18일 재미동창회 뉴욕지부 李俊行(섬유공학48-54 June Commercial 회장) 이사장(사진)이 본회에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10만 달러를 쾌척하기로 약정하고 먼저 2만 달러를 출연했다.

본회는 장학발딩 건립 후 발행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李俊行특지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李俊行이사장은 “뒤늦게 동창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서울대인에 대한 자부심과 모교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며 “특히 나의 소중한 동기생인 林光洙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장학발딩 건립사업이 많은 동문들의 신뢰와 참



여를 바탕으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80여 가까운 나이에도 두 아

들과 함께 수출입상사를 경영하며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유하고 있는 李동문은 현재 뉴욕지부동창회 이사장을 3년째 맡고 있다.

평소 “장학사업은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고 강조해온 그는 뉴욕지부 장학기금 관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李동문은 “저의 얼마 안되는 기부가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朴興日교수 3천만원

지난 6월 27일 호서대 朴興日(영어교육60-64 前파라기술부 관리관)초빙교수가 본회에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3천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 ‘謀世(興日)선교장학회’ 명의로 모교 기독학생회 출신 재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창년시절부터 선교 및 지역봉사 활동을 펼쳐온 朴동문은 34년간 공직에 몸담았으며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를 창립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이웃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동문 13명 1천만원씩

지난 7월 21일까지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본회에 1천만원 이상 출연 또는 약정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1천5백만원 : △金哲鉉(조경76-83)동영조경 대표

1천만원 : △白士鎬(재공학40-42)前대한광업진흥공사 이사 △邊尙鉉(의학51-57)동수원병원 이사장 △鄭培德(전기공학57-61)운암엔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장 △宋明鎭(광산학59-65)수도CAC 대표 △吳用慶(임학60-66)양지그린 사장 △李瑞浩(행정61-65)前한국후지쯔 대표 △崔昇喆(기계공학66-70)두산인프라코어 사장 △申万浩(경제67-71)현대오일뱅크 경영지원본부장 △金永甲(법학74-78)법무법인 서광 변호사 △李亨夏(법학74-78)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朴俊雨(의학75-81)박준우산부인과 원장 △趙吉雄(HPM 14기)국제발딩 회장.

기금 출연자는 개인 명의의 기금장학회를 설립하게 되며, 임대수익금을 통해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表)

각계 동문들의 기금 출연 줄이어

일동제약 李金器회장 1억

지난 7월 24일 일동제약 李金器(의학55-59 약제공학회장)회장(사진)이 본회에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5천만원을 쾌척했다.

李회장이 출연한 기금은 장학발딩 건립 후 발행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李金器특지장학회’ 명의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일동후디스 회장을 겸하고 있는 李회장은 제약업계의 최장수 전문경영인으로 지난 1960년 일동제약에 입사해 3년 뒤 종합비타민 ‘아로나민’ 개발을 주도한 바 있다.



1996년부터 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李회장은 스승의 날 기념 사은 골프대회,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등 매년 열리는 각종 행사에 물품을 협찬하며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코오롱 羅公默교문 1억

지난 6월 26일 코오롱그룹 羅公默(상학56-61)교문(사진)이 본회에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1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2천만 원을 보내왔다. 羅동문이 출연한 기금은 장학발딩 건립 후 발행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羅公默특지장학회’ 명의로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학졸업과 동시에 코오롱에 입사한 羅동문은 76년 석유회사인 코오롱유화사를 설립해 20년간 대표를 맡았으며, 이후 코오롱전자 대표·코오롱그룹 부회장·교문으로 40여 년간 외길을 걸어왔다.

모교 상대 또는 공대 출신 재학



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는 羅동문은 “요즘 학생들은 학문보다는 사회 이수에 대해 관심이 더 많다”며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학생시절을 소중히 여겨 학문에 더욱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지부동창회

새 회장에 金恒元동문 선출

제주지부동창회(회장 姜瑢禧)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임 회장에 金恒元(사회교육65-72 제주대 사회교육과 교수)동문(사진)을 선출했다.



신임 김회장은 "각 단체동창회 별로는 활발하게 모임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전체 동문을 아우르는 행사나 소모임을 개최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회장단회의를 열어 오는 10월에 계획 중인 동문 가족 운동장대회를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부동창회를 이끌어갈 제 18대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 제주대 玄公南(농경

제65-69)·李昌仁(의학71-78)·金富燾(법학74-78)·張元碩(정치74-78)·康庚廣(전기공학78-82)교수, 金光柱(지의학67-75) 치과의원장 ▲감사: 제주대 梁永洙(종교65-69·영문72졸)·林允圭(수의학75-82)교수 ▲총무: 아라중학교 高鍾益(불어교육74-78)교사.

전북지부동창회

부회장 등 새 임원 뽑아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城吉)는 최근 전주시에 '백리향'에서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대 회장단 출범식 겸 동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金亨贊(지의학73-79)총무의 개회사에 이어 金城吉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곳 전북지역에서도 많은 동문들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어 항상 자랑스러워 생각한다"며 "그동안 자주 모이지 못해 아쉬웠는데, 앞으로 각종 모임을 정례화하고 총동창회 지부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姜鍾旭(외교57-61)前전북도지사, 金元柱(정치66-70)전북도지사, 金熙堧(치의학62-68)차기 전북대 총장의 축사가 있었으

며, 禹仁澤(성악78-82)·金潤美(기약80-84 피아노전공)·金熙喆(기약82졸 바이올린전공)등문이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를 선보였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정임 회장과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수석부회장에 嚴茂一(중문59-65)동문, 부회장에 高健一(약학60-64)동문 등 20여 명을 새로 선임했다.

대전지부 관악오름회

가족과 계절조각산 등반

대전·충남지부 관악오름회(회장 曹 堧)는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지난 7월 13~16일까지 일본에서 해외원정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부산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 히카타항에 도착한 동문들은 전통

방식으로 지은 성천가 호텔에 짐을 풀 뒤 첫날을 보냈다.

둘째날 천만공을 둘러싼 동문 가족들은 1천2백개가 넘는 계단으로 이루어진 계절조각산을 등반했으며, 숙소로 돌아와 노점장에서 피로를 풀었다. 이날 저녁 세미나에서 權勝男(성악58-64)前중부대 대학원장이 '북식호흡에 관련된 건강식사와 심심', 한국전력문재연구소 金國鎔(철학72-76)부소장이 '북 미시일 실험발사와 북핵 미사일이 공동 아시아와 서방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여행 마지막날에는 화산재로 뒤덮인 아소화산, 수천사 공원 그리고 전투탑의 전투복 등이 전시돼 있는 용봉사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작가약력〉

- ▲62~66년 모교 동문미술과 졸업
- ▲76년 홍익대 대학원 졸업
- ▲79~05년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추천 디자이너 및 초대디자이너 부문전
- ▲81~06년 개인전 5회
- ▲82~05년 한국공예가협회 회원전
- ▲84~06년 한국섬유미술비엔날레전
- ▲93년 예술의 전당 전관개관 기념 현대미술대전
- ▲98년 한국섬유공예100년 초대전
- ▲00년 뉴질랜드 국립 코리아 토탈아트 초대전
- ▲03년 한·일 섬유미술교류전
- ▲05년 한·중 조소작품교류전
- ▲현재 단국대 공예학과 교수, 한국섬유미술가회 부회장



丁玉蘭 作

‘변화 Variety 96-07’, 린넨·동선, 면테이프, 83×83cm, 1996.

안동지부동창회

朱昇澤회장 선임



안동지부동창회(회장 林雨夏)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朱昇澤(국문63-67 안동대 국학부 한문학과전공 교수)동문(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그동안 안동지부에서는 젊은 동문들이 대다수인 안동대 교수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朱회장은 "선후배간 유대 강화를 위해 얼마 전 안동대 교수모임 회장인 柳源澤동문을 만나 1년에 한

번은 선후배가 하심탄회하게 정담을 나누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동지부동창회는 오는 12월 안동대 교수모임과 합동으로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알림

제2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9월 11일(월) 렉스필드CC

모교 개교 60주년 기념, 신임 李展茂총장 취임 축하 및 장학발급 건립 추진을 위한 제2회 총동창회장배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각 단과대학(원)·특별과정·직능지부 동창회와 지방·해외지부 동창회가 모두 함께 하는 행사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2006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 ◇장 소: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상문리 렉스필드 컨트리클럽(전화: 031-880-0300)
- ◇참가대상: 단과대학(원)·특별과정 동창회, 직능지부·지방지부·해외지부 동창회별로 2개팀 출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가능(접수는 해당 동창회에 문의)
- ◇진 행: 샷전방식
- ◇시상내역: 단체전 및 개인전(여성부 별도) 이글, 펄온, 갑작스 등 시상

출원원상은 최고급 승용차(렉서스) 예정

※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故 金道和선생 1주기

목초 법률상 매년 시상

지난해 7월 수환으로 별세한 한국 공법학의 대부 金道和(법학43-47)번호사의 1주기를 맞아 추도 행사준비위원회가 지난 7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기념홀에서 학술대회와 추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모교 법학부 成燮興(행정69-73)·朴正勳(법학77-81)교수, 연세대 金鍾



鐵(공법84-88)교수, 성균관대 李光潤교수 등이 한국·독일·영국·프랑스 공법학의 형성과 개척자에 대해 진술했다.

이날 모교 법학부 崔松和(행정

59-63 한국행정관리연구회장)교수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법문과 선진화와 법치국가를 기여하고자 '敎村 법률상'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목초 법률상은 金道和번호사의 네 자녀(惠英·성악79졸, 栢均·의학78-82,

容均·경제79-83, 性均·경영82-86)가 설립한 재단법인 김&홍을 통해 학술지인 금초를 마련해 법이론·법실무분야로 나눠 매년 시상할 예정이다.

포항지부동창회

회원 명부 발간하기로

포항지부동창회(회장 洪相福)는 지난 7월 4일 포항시에 일시집에서 임원모임을 가졌다.

2006년 상반기 재무보고에 이어 이날 참석자들은 지부 활성화를

위해 회원 주소록을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직장별 동문 찾기, 변경된 연락처 업데이트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동문 경조사와 동호회 지원을 비롯해 모교에 합력한 포항지역 재학생 및 동문 자녀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李鍾漢(상대전문46-49)·黃菊姬(사회사업62-66) 부회장, 嚴炳吉(사회68-72)·吳滋文(건축73-80)·黃基福(원예76-85)이사, 金永璠(국어교육52-56)·崔根善(행정54-58)·李大公(법학60-64)·金熙堧(의학61-65)지문위원, 田華昊(금속83-87)총무 등이 참석했다. (裴)

ROTC동문회

42기 후배 위한 취업설명회 '인기'

ROTC동문회(회장 梁在鉉)는 지난 7월 1일 모교 관악캠퍼스 학군단 강의실에서 최근 전역한 42기 동문 환영회 및 동기회 결성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梁在鉉(전축65-69-77)회장, ROTC교수동문회 劉丁奎(기계65-69-77)회장, 차 례학군단장을 비롯해 42기 30여 명 등 총 80여 동문이 참석했다.

梁在鉉회장은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 기쁘다"며 "사회에 나와서도 서울대 ROTCian의 자제와 대한민국 리더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환영회에 이어 진행된 42기 동기회 결성식에서 회장에 박종환(경계00-04)동문, 사무총장에 김형래(건국00-04)-홍성철(중앙생



물화학00-04)동문, 총무에 이동희(국악00-04)동문이 선출됐다. ROTC동문회는 본 행사에 앞서 GS칼텍스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문을 강사로 초빙해 취업설명회를 제공했다.

姜實根(자원공학70-74-12기)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ROTC 동문회에서 처음 여는 행사"라며 "관 사회에 진출할 후배들에게 동 문회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생대동창회

9월 9일 휴커밍데이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尹勳煥)는 오는 9월 9일 10시 모교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 잔디밭과 문화관 대강당에서 농학 교육 1백주년 기념식 및 상록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상록의 날 행사와 농학교육 1백주년 기념행사로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부 행사는 행정관 앞 잔디밭에서 학과별 총회, 총동창회 정기총회, 이벤트 공연 등으로 꾸며지며, 2부는 문화관 대강당에서 농학교육 1백주년 기념식, 레이저쇼, 문화공연 등으로 채워진다.

이날 제4회 자랑스러운 상록 인대상 수상자로 金俊輔(수원고 농38졸)前한국경제학회, 유화준권 尹大憲(농공49-55)부회장, 뉴욕폴리텍대 李典九(임학60-64·재미동창회 수석부회장) 대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전신인 대한제국 상공부 산하 농림학교와 농촌진흥청의 전신인 '관업 모범장'이 설립된 지 각각 1백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南)



AIC동창회

정동부 盧俊亨장관 강연

정보통신부장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日洙)는 지난 7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홀 등에서 정보통신부 盧俊亨(법학72-76)장관을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盧俊亨장관은 "2006년 하반기 정보통신정책방향"이란 주제의 강

연에서 SW산업 육성, 세계 최초 WiBro 상용서비스 확대, IT KOREA 국제적 리더십 구축 등의 정책안을 설명했다.

盧장관은 "국내 산업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열한 국제 경쟁사회에서 정보통신 일등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보다 앞선 정책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AMPFRI동창회

베트남 요리연구사 다나와

식품 및 외식산업보전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呂潤庚)는 지난 7월 15~1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해외 음식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행사에는 20여 동문이 참여해 베트남 정통쌀요리, 월남

쌈, 해산물 정식 등의 음식을 체험하며 베트남 요리에 대한 인목을 넓혔다.

그밖에 호치민의 구제터널, 전쟁기념관 등을 관광하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는 9월 24일 AMPFRI 과정 설립 10주년 기념 총동문 한 마름 체육대회 및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LP동창회

골프대회 1백40명 참석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辛秉烈)는 지난 6월 26일 경기 광주 강남3000CC에서 제3회 친선 골

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辛秉烈(3기)회장·金一煥(2기)감사·김준호(6기)골프회장·任奎生(8기)사무총장, 모교 李秉勳(화학공학54-58)·金顯哲(경영81-85)교수, 한국무역협회 李潤熙(전자공학67-71)회장

故 崔桂根명예교수 제자 들꽃수목원 친목 여행

모교 공대 전자공학과 교수를 지낸 故 崔桂根(전기통신48졸)명예교수의 제자들이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양평 오만리에 위치한 들꽃수목원(대표 鄭一讓)을 다녀왔다.

대학원 전자공학과 자동제어연구실에서 함께 수학했던 60여 명의 제자들이 91년 10월 崔桂根교수 타계 이후 모임을 결성해 매년 추모행사, 승년모임, 단합 여행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 현재 이 모임의 회장은 국민대 金道炫(74-76)교수, 총무는 인천대 洪福榮(83-85)교수가 맡고 있다.

법과대학동창회

31대 회장단 상견례

법과대학동창회(회장 李載厚)는 지난 6월 28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19층 대회의실에서 31대 회장단 출범 후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신임 임원단 상견례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 李載厚(법학58-62)회장·鮮于宗源(법학41졸)·玄勝鍾(법학43졸)·金春鳳(법학44-48)고문 등을 비롯해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 및 낙산장학회 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모교 방대 胡文赫(법학68-72)학장과 鄭潤奎(법학77-81)·李元雨(법학82-86)

등 동문 1백4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준안(5기)동문이 1천만원, 辛秉烈·김준호·姜德壽(8기)동문이 각각 5백만원의 현금을 출연했으며, 각 기수별로 꾸민 경품을 제공해 대회를 한층 풍요롭게 했다.

이날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선제전 우승: 5기, 준우승: 4기 △개인전 우승: 황영순(7기), 준우승: 김호진(5기), △메달리스트: 서기섭(5기) △나어리스트: 이종기(한국무역협회) △트럼프스트: 김준호

마 퍼

李元靚



李元靚을 기원합니다!

휴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10월 14일 토요일, 관악캠퍼스에서 만나요!

모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제28회 휴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를 오는 10월 14일 거행합니다. 모교를 방문하여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우배, 동기들과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모교의 품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 | |
|------------------------|-----------------------------------|
| △일 시: 2006년 10월 14일(土) | △제관물품: 도시락, 식음료, 기념품 (차진원교수 CD) 등 |
|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 △경 품: 다량의 선물 후원 (林光洙회장 승용차 제공) |
|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 가족 | △문의전화: 02/702-2233 |
| △참가비용: 없음 |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光洙

신임 동창회장 인력보

공과대학동창회 許鐵奎회장
(일진그룹 회장)

공과대학동창회는 지난 5월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에 일진그룹 許鐵奎(금속공학59-63 본회 부회장) 회장을 선임했다. 서면을 통해 활성화 방안과 그 밖의 사업계획을 들어왔다.

- 3만7천여 공대 동문들 아우르는 임무를 맡으셨는데.

"부족한 제게 동창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산업계의 요란 역할을 해온 공대동창회의 대표로서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먼저 길을 닦은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동창회 중흥에 앞장설 것입니다."

- 동창회 활성화 방안은.

"젊은 후배와 연륜 있는 선배가 조화를 이룬 모임이 이상적인데, 여는 동창회와



개발관련 세미나, 박람회 등을 열어 양측의 의견조율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가지 더 욕심을 낸다면 해외에 있는 동문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할 방안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동창회 역시 세계화시대에 발맞춘 글로벌 동창회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죠."

- 공대 동문들에게 바라는 점은.



신임 동창회장 인력보

사범대학동창회 林煥淳회장
(한국세무사회 회장)

- 동창회 회원이 꽤 많죠.

"경성사범학교 졸업생까지 합하면 회원수가 2만6천명 정도 됩니다. 동문들이 교육계는 물론 정·관계에도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장관이 두 분, 국회의원이 9명이나 됩니다. 각 학과동창회, 여성동창회 모임도 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요. 특히 비교직자 모임인 '청안회'의 활동이 두드러지죠."

- 친목단체를 이끄는 노후우려면.

"친화력을 줘고 싶습니다. 어느 단체든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마련인데, 이 분들이 조화롭게 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술에 비유해 '막걸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가 모임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사범대학동창회는 지난 5월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다함세무법인 林煥淳(수학교육60-64)회장을 선출했다. '살아있는 동창회'라는 가치를 내걸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林회장을 만나 소감과 계획 등을 들어왔다.

- 첫 60학번대 회장이신데.

"李相國 전임 회장님이 56학번이셨으니 그다지 계단을 뛰어 넘은 셈이죠. 동

"기업과 학계 가교역할 힘써"

마찬가지로 젊은 동문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홈페이지는 디자인과 내용이 미흡해요. 질을 한 단계 높여 정겨운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또 동아리 지원과 모교 행사 협찬을 통해 재학생들로부터 동창회의 존재를 알게 하고 졸업 후에도 선배들과의 만남이 어색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다면.

"공대동창회를 기업과 학계의 가교역할을 하는 산학연의 산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선 홈페이지를 이용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학계에서 연구하는 기술'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업·학계 교류센터(가칭)'를 개설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각종 연구

"시간 날 때 가끔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회원 여러분이 곧 동창회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개개인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힘을 합쳐 큰 일을 도모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전 세계에 같이 남을 족적을 세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許회장은 67년 일진전기공업 창업 이래 신소재, 광통신, 첨단전자부품 등 폭넓은 산업분야의 제품을 생산해 왔으며 현재 12개 계열사를 거느린 연매출 1조원대의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88년 석탑산업훈장 수훈, 2002년 부역인 대상, 2003년 서울대 AMP대상 등을 수상했다. ROTC중앙회 5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코스타리카 친선협회장과 한국 공학한림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막걸리 스타일 단결심 도와"

창회에 참여하는 동문들의 연령대를 낮춰 보자는 의미에서 쟁쟁한 선배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이런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동창회관 건립계획은.

"동창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전에 광화문에 회관이 있었을 때 동창회 활동이 활발했거든요. 낡시대회, 장기대회도 열고 동문들이 오고 가다 될 수 있는 사람방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지금은 일반 빌딩에 입주해 사무업 무만 보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을 팔면서 받은 돈과 동문들이 내준 건립기금을 합해 현재 25억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총 동창회와 협의를 통해 장학빌딩이 건립되면 입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최근에 지령 153호 회보를 발간했으며, 가을에 있을 수련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대회에 대한 동문들의 호응이 좋아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또 정기적으로 회관 마련이 절필 수 있도록 기금 모금을 독려하고 장학사업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남 장흥 출신인 林회장은 제1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방공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22대·24대 회장을 거쳐 현 25대에서도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재정 광주·호남항후회장으로 산림통에 회관을 건립하기도 했다. (南)

화제의 동문

고려문화재연구원 金秉模 이사장

30년 여정 담은 '고고학 여행' 펴내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여러 갈래의 씨족과 부족이 모여 형성된 민족이며, 열대지방 출신의 농경민족과 한대 지방 출신의 기마민족, 그리고 해양민족까지 혼합해 있습니다."

"한국인의 원형"을 찾기 위해 한 평생 고고학 연구에 바친 고려문화재연구원 金秉模(고고인류학 65 한양대 명예교수)이시장이 최근 발간한 '김병모의 고고학 여행'에서 밝힌 내용이다. 찬란한 반만년 역사의 단군 자손으로 세계 유일의 자랑스러운 단일민족이라고 굳게 믿어 왔던 우리들, 사실에게는 종편자갈은 소리로 들린다.

"우리가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고인돌과 난생신화의 세계적 분포를 통해 벼농사를 매개로 하는 남방계 문화를 읽을 수 있고 신라 금관이나 쇄대, 갈일지 설화에서 북방계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만 개나 남아 있는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에 나타난 남아시아 지역의 매장장소이며, 우리말 '쌀' '밥' '배' '풀' '알' '기레'가 인도지역 토착어인 드라비다어에서 각각 '살' '비야' '발' '풀' '아리' '카리'로 불린다는 점은 농경문화와 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고는 풀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쇄대는 알타이, 아쿠티아, 바이칼, 몽골지역 사람들의 神鳥(神鳥)인 그 뿌리라고 말한다. 또 신라 金씨의 조상인 갈일지가 알타이 계통의 인물이라는 것은 그의 탄생설화가 얹혀 있는 곳 蘇林(蘇林) 알타이 영웅탄생 나무와 직결돼 있으며 신라 왕족들의 적색 복단 무늬들은 북방 기마민족의 전통 매

장풍속이라고 설명한다.

"모고 외대 李(李)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몸 속에는 북아시아 사람들의 유전인자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사람들과의 혼합 유전인자까지 섞여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와 유전인자, 문화인자까지도 공유하고 있는 민족들이 지구 곳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날로 좁아지고 경제적 협조를 해야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순혈주의나 선민의식은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다"

'김병모의 고고학 여행'은 2003년부터 7개월간 월간조선에 연재된 내용을 정리해 엮은 것으로, 한국 고대사에 감춰진 의문들과 한민족 구성 과정을 파헤친 30년 여정의 장편 다큐멘터리다. 단일민족에 대한 내용 외에도 유라시아 대륙의 오지에서 발견된 토착 민족들이 한국 고대사의 주요 인물들이 썼던 금관과 허리띠 디자인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라고 밝히고 있으며, 카자흐 유목민족의 대화에서 한국어의 '사람'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내는 등 흥미진진한 탐사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金동문은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오지를 탐방하며 있었던 일들을 예시에 형식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고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자료정리를 도운 고려문화재연구원의 한 직원은 "이시장님께서 직접 원고를 읽고 녹음해 들으면서 어려운 말이나 어색한 문장을 수정



하는 과정을 수도 없이 거치는 등 그동안 펴낸 그 어느 책보다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金동문이 유적지 답사를 위해 해외를 다녔을 때인 항공마일리지까지 90만 마일 정도, 답사를 다녀올 때마다 기록한 작은 메모수첩은 4백권이 넘는다.

30년 동안 유적지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金동문은 "우리의 원형이 많이 남아 있는 인도 내륙지방, 타롤리마산 사막, 히말라야산맥 마을, 류바공화국, 톤드라지대"를 소개했다. "이 지역은 우리와 관련된 언어학, 풍속, 사머니즘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광맥들입니다. 원시공동체의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이런 유적지를 다니며 얻는 소독은 학문적인 것 외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현실로 눈앞에 나타났을 때 느끼는 벅찬 감동, 원주민들의 독특한 음식, 전혀 다른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오는 신선한 충격 등.

"때로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 재료에 둘도 모도 못한 향신료들이 미각을 자극할 때 엑스타시 같은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민족에 따라 다른 조리방법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재수시절 인문학자 꿈 키워

金동문은 모고 고고인류학과 1회로 입학했다. 모고 토목공학과에 낙방하고 재수를 한 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 재수를 하면서 홍사단이나 여러 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강연회를 많이 다녔다. 그곳에서 지역민사들의 강연을 들으며 사회를 보는 안목을 키웠다.

"안정박사님의 강연을 들을 때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아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문과 출신이란 생각이 들었고, 외국어에 자신이 있어 토목공학과에서 인문계열인 고고인류학과로 전로를 수정했습니다."

당시 고고인류학과 입학생은 모두 10명. 그 중 7명이 대학교수가 돼 우리 나라 고고학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5월 한양대에서 정년을 맞은 金동문은 요즘 중국을 왕래하며 아시아 북방 민족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년 전부터 중국 운남대학과 함께 중국 북방지역에 거주했던 토착민들의 삶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연구는, 제 목표지에 30%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은 자유롭게 유적지 답사를 하면서 다니며 한국인의 원형을 계속해서 밝혀내요. 가능하다면 '극동아시아의 2~3천년 역사'를 써보고도 싶어요."

끝으로 후학들에게 "사회에 나오기 전 배낭을 둘러매고 세계를 한바퀴 돌아볼 것"을 주문했다.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반드시 소르 헤이레르달의 '콘티키'와 이시타 유스케의 '가 보지 전에 죽지 마라'를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모험심과 지적 열망이 가득했던 두 사람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떠나다면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올 것입니다." (南)

김병모의 고고학 여행 1.2

고고학자는 퍼즐 조각을 맞추어 나가는 탐정과 같다.

한반도 문화유적지에 각인된 인도의 흔적 한민족의 빛과 어사의 뿌리와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현장들을 헤집고 다닌 고고학 전문가의 보고서이자 풍부한 서정이 담긴 여행기 _ <한겨레신문> 한송동 선임기자

한국 고대사에 감춰진 비밀 한국 문화의 원류를 유라시아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했다. _ <국제신문> 조해준 기자

고고학은 상상력 넘치는 여정 때론 통설과 다른 이야기를 대담하게 내놓기도 했다. _ <조선일보> 신형준 기자

유라시아·남아시아를 뒤흔들 한민족 문화유적지를 깨다. 인도 곳곳에 우리의 흔적, 비슷한 언어도 400여 가지 _ <부산일보> 박종호 기자

미증의 역사를 푸는 퍼즐 게임 고고학의 묘미는 퍼즐 게임에 있고, 그 암호 조각을 맞추었을 때의 지적 쾌감은 이 세상 어떤 게임보다 크다. _ <동아일보> "책 읽는 대한민국: 흥미진진한 역사 읽기 30년" 일광용 소설했다

고래실

김병모의 고고학 여행 1.2

김병모 저 | 228쪽 | 각권 1만2500원

http://www.goracesil.co.kr | Tel. 02-062-0545



Noblesse Oblige

여수애양병원 김仁權원장

한센병 환자 재활치료에 평생 헌신

77년 레지던트 2년차 시절, 金仁權(의학69-75) 동문은 당시 '레지던트 기간에 6개월 동안 무의촌에서 의료봉사를 해야 한다'는 법 때문에 소록도 한센병(나병) 환자촌에 들어갔다. 6개월 후 학교로 돌아왔을 때, 한센병 환자들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미안함. '왜 같은 세상에 태어나 저들은 저런 모습으로 남들의 외면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나.'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공중보건과로 다시 소록도로 내려갔다.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여수애양병원과 인연을 맺는다. 당시 소록도내 병원에는 수술도구가 많지 않아 여수애양병원에서 빌려야 했다. 여수애양병원은 우리 나라 최초의 한센병 치료 전문 병원으로 소록도내 병원보다 시설이 좋았다. 그렇게 여수애양병원과 관계를 맺고 의사가 부족할 때 도움을 주며 그곳 의사와 친분을 쌓았다.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날이 왔다. 부모님은 대학병원으로 가 주길 바랐고 金동문 자신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다. 또 교수님으로부터 대학병원에서 일할 것도 제안 받았다. 하지만 여수애양병원은 金동문이 집심히 필요했다. '내려가자. 대학병원은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곳은 없지 않은가.'

85년 여수애양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부임 후 95년 12대 원장에 취임해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순천에 자리를 잡은 지도 벌써 26년. 연고도 없이 시작된 외지생활이지만 지금은 말투만 서울 사람일뿐이다.

"겨울에 춥지 않고 음식 맛이 좋습니다. 30분이면 지리산과 남해에 닿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좋은 순천을 떠났나까. 제가 서울에만 머물렀다면 이런 인생의 참

맛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한센병은 천형으로 불린다. 저주받은 병으로 묘사할 정도로 얼굴과 손, 발에 끔찍한 변형을 가져와 환자 자신이나 보는 이에게 혐오감을 준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낮은 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됐다. 소록도나 환자촌이나 여수애양병원내 환자마을이 그런 곳이다.

하루 평균 관절수술 15회나...

金동문이 공중보건의로 소록도에 부임했던 시절, 한센병 환자 수는 3천5백명에 이르렀다. 여수애양병원에도 1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수가 줄어 소록도에 6백50여 명, 여수애양병원에도 84명만 남았다. 남아 있는 사람도 대부분 노인 병력자로 안치된 사람들이다.

"최근 한센병 발병률 자체에 따르면 한 해 10명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라졌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제는 병력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사회에 어떻게 적응시켜주느냐를 고민할 때입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여수애양병원의 역할도 달라졌다. 초창기 한센병 전문병원에서 소아비비 장애자 재활병원으로, 지금은 관절치환수술을 주로 하는 병원으로 자리잡았다. 소아비비 환자가 많던 시절엔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들로 입원 등록에서 수술까지 2년이 걸린 적도 있었다. 지금은 인공관절수술로 유명하다. 의사 8명, 98개 병상의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여수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있음에도 하루 평균 5백여 명의 환자들이 다닌다. 지난해만도 2천3백명이 고관절과 슬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많은 만큼 金동문의 하루는 바쁘다. 하루 평균 15회 이상의 수술을 하고,



한센병 환자와 함께. (맨 오른쪽 金仁權원장)

말을 때는 32명을 수술한 적도 있다. 직원들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숫자다.

"하루 수술계획을 잡으면 반드시 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수술 환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 늘기 때문이죠. 직원들도 오늘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불만이 많을 텐데, 내색 없이 일해주는 직원들이 고맙죠."

이런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여수애양 병원에는 대를 이어 다니는 직원이 12명이나 된다. 서로간의 깊은 애정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베트남에서 진료봉사도

최근 金동문은 의료봉사의 범위를 중국, 베트남 등지로 넓혀 나가고 있다.

중국 연변에 여수애양병원 출신 의사들이 병원을 건립해 8년째 의과기술 전수와 환자들을 수술해 주고 있다. 그동안 50여 명의 환자들이 金동문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베트남은 거점 병원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여러 대학병원의 요청을 받아 도움을 주고 있다. 매년 2명의 의사를 한국으로 데려와 기술을 전수해 현재 12명이 연수를 받고 돌아갔다.

"베트남은 과거 전쟁 때 본의 아니게 우리 나라가 참가해 피해를 준 국가이기에 각별합니다. 그 전쟁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독을 보기까지 했는데 그 미안함을 덜기 위해서라도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동문은 2004년 의과대학동창회가 참의사의 도리를 널리 일깨운 張起鳳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1회 '張起鳳 醫道賞'을 수상했으며, 지난 5월 국민 건강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예전에 張起鳳선생님을 한번 만나 본 적이 있고 책도 읽었습니다. 제가 그런 본의심을 받았다는 게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張起鳳선생님은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한 분인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묻자 "여기서 쉬는 게 휴가"라며 웃는다.

"병원 일이 바빠도 보니 토요일 하루 쉬는 게 휴가예요. 휴가 가면 어디로 갈 것이며 가서 또 뭘 하겠습니까. 다니면 복잡하기만 하지. 아이들이 어린이 교재해 볼 텐데, 더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것보다 정형외과 전문의 한 분이 필요하네 이곳에서 함께 일할 좋은 분이냐 왔으면 좋겠어요."

(南)

콩트 릴레이

열병

孫章純(불문54-58)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동진은 타이베이에서 후퇴지근한 날씨 속에서 바이어들을 만났는데 때로 민주의 얼굴이 떠오른다. 민주와 악혼 날짜를 잡아 놓자마자 회사 일로 출장을 온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를 안고 싶어서 눈에 어리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 결정되면 책을 보아도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도 악혼자의 얼굴이 보이는 그런 기간이기는 하나, 그보다는 민주가 그를 진실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인지 새삼스럽게 회의가 일어난 것이다.

민주는 처음에 트라이앵글 속의 한 여자가 되었다. 민주는 그의 친구 한영이를 애초에 좋아하다가 그의 적극적인 구애에 관심을 표해온 것이다. 한영은 민주를 좋아하면서도 동진의 적극성과 대결하기보다는 슬그머니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위로 결혼할 형과 누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는 마침내 동진에게 마

사스가 아무리

공포스런 열병이라

해도 사랑의 열병만큼

무서울까.

나 자기에 대한 열병에

걸렸나 봐.



일러스테이션 吳漢秀(서양화02인) 동문

내가 자택 격리 휴가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나 자기에 대한

사랑 열병의 잠복기가

너무 오래되었나 봐.

그에게 사스는

조금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열병처럼

극복해야 할 일이라면

잠복기와 하더라도

즐겁게 대처할 할

생각이다.

음을 먹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동진은 민주의 마음의 소재를 기능할 수가 없다.

동진은 그녀와 키스는 했지만 아직 밤에 안아보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조금은 찜찜하다. 남녀는 무어니무어니 해도 성함이 잘 맞아야 할 것 같아서다. 그렇다고 주말에 여관이나 호텔에 데리고 가는 것은 그의 체질에 잘 맞지 않는다.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어 밤에 그녀를 유혹하고자 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동진은 부자연스러운 것을 싫어하기에 자연스러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차일피일 날짜가 넘어가고, 갑자기 출장을 나오게 된 것이다.

영종도 공항에는 민주가 차를 끌고 나와서 그를 반갑게 마중을 한다. 동진은 이때까지 회사 일로 북한한 해외 출장을 나갔지만 누가 마중 나온 적이 없다. 그는 비로소 그에게도 애인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동진은 민주에게 손을 흔들며 반가움을 나타낸다. 그가 출영장까지 여행 배를 타고 나왔을 때 민주가 그에게 달려들어 가볍게 포옹을 한다. 동진은 백에서 손을 놓고 그녀를 힘껏 껴안는다.

“일주일이면 어차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여기까지 왜 나왔어?”

“나보다 자기가 대만에서 사스에 전염되어 올라 보아 겁이 났었는데 이렇게 전해해서 돌아오니 너무 좋다.”
“누가 알아? 사스는 잠복기가 열흘이나 된다는데, 며칠 후에 열이 나면서 발병의 증상이 드러날지?”

“농담이리라고 그런 말 말아요. 악혼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참 자기 신을 사른 것 있는데 이따가 한번 꺼야 봐.”

“무얼?”

“비취 반지를 사왔거든.”

“내 손가락 사이즈도 모르면서.”

“그러길래 떠나기 전에 악혼 반지부터 사 놓고 가려고 했는데, 그랬더라면 손가락 사이즈를 알게 되어 문제가 없는건데, 그래도 대충 눈짐작으로 어떻게 샀으니까 끼어 보아요.”

“그보다 자기 시장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식사부터 해요. 이른 저녁이지만 식사할 만한 데가 있을 거야. 한우리 어때요? 거기 가면 보쌈집지도 있고, 시간 제한도 없어요.”

“대만에서도 김치가 날개돋친 것처럼 팔려, 한국에 사스가 별로 없는 것은 마늘을 먹은 덕이라고 생각해서 중국 사람들도 너도나도 김치를 사먹는 바람에 김치가 들어나서야 해.”

“여기서도 요사이 로스쿠이 할 때 부쩍 마늘을 많이 구워서들 먹어요.”

두 사람은 강남까지 와서 아무 떠나 식사할 수 있도록 하루종일 열렸있는 한우리로 돌아가 자리를 잡는다. 종일일이 내달아 오자 동진은 벌써 2인분을 주문한다. 동진은 비로소 민주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본다. 그녀는 보지 못하는 동안 더 여성스러워지고 얼굴도 한껏 파어오르고 있다. 사랑하는 남성을 기다리면서 성이 한껏 무르익은 얼굴이다. 동진은 서류 백을 열고 조그마한 포장을 꺼내어 민주 앞에 내놓는다. 민주는 찬찬히 포장을 뜯고 조그만 갑 안에 든 비취 반지를 꺼내어서 꺼어 본다.

“잘 맞네. 어차면 그리 잘 알지?”

“인제 악혼 반지만 함께 가서 사면 됐어.”

두 연인은 즐겁게 식사를 하고 나자 동진의 휴식을 위해 각자 자기 처소로 헤어져 갔다. 밤늦게 국립보건원에서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비행기에서 그의 뒤에 있었던 여객객이 사스 환자로 추정되어 앞으로 열흘간 자택 격리 환자 리스트에 동진이가 들어 있다고 통고를 하는 것이다.

동진은 자택 격리 조치를 받아 당분간 회사를 쉬어야 되는 것에 패배를 부른다. 기관지가 튼튼하고 폐도 건강한 그는 웬만해서 독 폐렴인 사스에 감염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을 믿는다. 설사 감염되더라도 치명적으로 옮지 않고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는 이번 기회에 민주에 대한 열병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완치를 하고 싶다.

동진은 회사에 e-메일로 출장을 다녀온 보고를 한 후 민주에게 사스 추정 환자로 자택 격리 조치를 받은 것을 전하로 알린다.

“그럼 사스에 전염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그렇잖지. 난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으니까, 안심하고 내 오피스텔에 오지 않을래요?”

“물론 기보아라했지. 그런데 괜찮을까?”
“무엇이? 우리 만남은 것 누가 감시할까

보아?”

“그럼 기다려요. 자기 맛있는 것 요리해 줄 재료를 사기 위해 시장을 보아 가지고 갈게요.”

동진은 한동안 청소를 하지 않고 지낸 오피스텔 실내에 냄새가 배어 있을까 보아서 창문을 열고 청소기로 대청소를 한 후 방황 재까지 뿌린다. 그는 월차 바랑수보다 더 오붓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자 기대에 부풀어 있다.

민주는 반찬거리 이외에도 과일과 꽃을 한 아름 사서 들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공항에서 볼 때보다 더 색색해 보이는 것이 그의 관능을 자극해 온다.

“자기 이따가 사스에 감염되었으면 어떻게 하지? 사스는 잠복기가 열흘이나 된다는 거야.”

“사스가 아무리 공포스런 열병이라 해도 사랑의 열병만큼 무서울까. 나 자기에 대한 열병에 걸렸나 보아. 내가 자택 격리 휴가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나 자기에 대한 사랑 열병의 잠복기가 너무 오래되었나 보아.”

“하지만 혼전엔 나를 어쩔 생각은 하지 말아요.”

동진은 그 말이 떨어지자 그녀가 실로 그를 사랑하는지, 한영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던 심오리가 같은 의혹이 불는 녹듯이 사라진다. 혼전 성관계를 금기로 생각하는 민주가 한영과 육체 관계를 가졌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면서 금급한 것을 기어코 입밖에 내어 뱉는다.

“자기 한영과도 사스 열병 같은 것을 앓았어요?”

“그게 그렇게도 궁금해요? 한영과는 잠복기도 없었어. 무드가 생겼다가 말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이 카톨릭이라 나 같은 금욕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난 사람이야.”

“과거는 아무래도 좋아. 단지 나는 지금 너와의 열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싶을 뿐이야.”

“사스는 어쩌다 한 번 걸릴까 말까 한 무서운 병이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하지만 우리가 열병을 앓고 나면 더 건강한 면역체가 생기리라고 생각해. 그래야 애도 낳고 건강한 결혼 생활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동진은 비로소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민주를 안는다. 사스가 아니었다면 가질 수 없을 진기한 시간과 참된 사랑의 확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는 언제까지나 행복 지수를 올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어머니가 결혼도 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거부해 첫 애인과 헤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못 낳을 선도 낳을 수 있다고 마음을 다잡아먹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를 아껴서인지 신혼여행을 갈 때까지 그런 욕망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한다.

동진은 부자연스런 민주의 의사를 존중해 주기로 한 것을 다행하게 생각한다. 그에게 사스는 조금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열병처럼 극복해야 할 일이라면 잠복기와 하더라도 즐겁게 대처할 할 생각이다. 그러나 사랑의 잠복기는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 어느 날 사랑의 열정이 북받쳐 터져 나올 것을 생각하면 민주가 다시없이 사랑스럽기만 하다.

새 보직교수 임명

金信福부총장·權斗煥대 학원장

모교 소식

모교는 지난 7월 21일 부총장에 행정대학원 金信福(교육64-68)교수, 대학원장에 국어국문학과 權斗煥(국문66-70)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부총장은 78년 모교에 부임해 교무처장·행정대학원장, 교육혁신지원부 차관, 경원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權대 학원장은 81년 모교에 부임해 교무처장·인문대 학장, 한국기사회화장 등을 지냈다.

또 교무처장에 경제학부 金完鎭(경제72-76)교수, 학생처장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李政宰(농공학69-73)교수, 연구처장에 물

리천문학부 鞠棟(물리71-75)교수, 기획실장에 재료공학부 金亨俊(재료공학71-76)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모교 입학관리본부장에 철학과 金泳楨(철학74-78)교수, 국제업무 총괄하는 대외협력본부장에 사회학과 宋虎根(사회75-79)교수, 기초교육원장에 법학부 朴憲正(이화여대74졸)교수, 중앙도서관장에 인문정보학과 朴明珍(불문65-69 본보 논설위원)교수, 발전기금 상임이사에 기계항공공학부 朱鍾南(기계공학75-79)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모교는 또 지난 7월 31일 교무처장에 역사교육과 梁泰煥(역사교육76-80)교수, 학생부처장에 제약학과 朴亨根(제약81-85)교수, 연구부처장에 산부인과과 교실 宋容相(의학77-83)교수,

교무처장 金完鎭
교무부처장 梁泰煥
학생처장 李政宰
학생부처장 朴亨根
연구처장 鞠棟
연구부처장 宋容相
기획실장 金亨俊
기획부실장 南益鉉
입학관리본부장 金泳楨
대외협력본부장 宋虎根
기초교육원장 朴憲正
기초교육원부장 洪鍾仁
중앙도서관장 朴明珍
발전기금상임이사 朱鍾南
인문대 학장 李泰鎭

기획부실장에 경영학과 南益鉉(경영81-85)교수, 기초교육원 부원장에 화학부 洪鍾仁(화학78-82)교수를 선임했다.

한편 인문대학 학장에 국사학과 李泰鎭(사학61-65)교수를 선임했다.



金信福부총장



權斗煥대 학원장



金完鎭교무처장



李政宰학생처장



鞠棟연구처장



金亨俊기획실장



金泳楨입학관리본부장



宋虎根대외협력본부장



朴憲正기초교육원장



朴明珍중앙도서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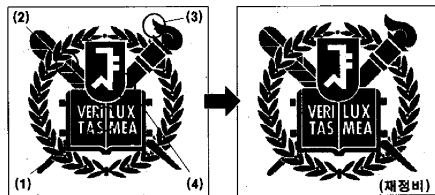
朱鍾南상임이사



李泰鎭인문대 학장

“모교 UI 달라졌습니다”

교표 재정비...로고에 시각미 높여



최근 모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체계적인 이미지 통합을 위해

UI(University Identity)를 확정 발표했다.

교표는 전통성을 유지하는 상태에 있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VERITAS'와 'LUX MEA'의 간격을 넓게 조정했으며(1), 기존의 펜 좌측 형태가 어긋나 불안정한 것을 바르게 조정했다(2). 또 햇살의 라인을 정리해 단순화시켰으며(3), 직사각형과 반원을 결합한 방패의 라운딩 라인을 부드럽게 다듬었다(4).

한편 이번 UI 재정비와 더불어 국문과 영문의 로고 자간을 조절해 시각미를 높였으며, 다양한 이니셜(SNU) 로고를 만들었다. 또 표어 'Intellectual Pioneer'를 채택했다.

재학생의 소리

장비는 낡았지만 복싱 열정은 충만



鄭秉同

(농산업교육04임·3학년)
복싱동아리 FOS 주장

포스(Fist of SNU)는 5회째 열린 전국대학복싱동아리 선수권대회에서 4번 우승한 대학 최강 복싱동아리입니다. 지난 3월 제59회 전국 신인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1개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포스는 95년 설립된 비공식 동아리로 활동을 해오다 2000년 정식 중앙동아리로 등록이 돼 현재 60여 명의 학생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짧지만 성적이름은 가장 우수한 서울대의 으뜸가는 운동 동아리로서 학내 관심도 역시 으뜸입니다.

서울대생들이 공부만 열심히 했을 텐데 막상 운동을 시작하면 외외의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결코 지지 않으려는 '깡'을 가지고 있어 복싱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요즘도 9월말 개최 예정인 전국대학복싱동아리 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며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클러브와 헤드기어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한 만큼 교체가 잘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낡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맑은 날 그늘에 말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이다 보니 금새 땀에 젖게 됩니다. 또한 복

싱부가 위치한 자리가 과거에 참고로 쓰이던 곳이라서 습기가 잘 차고 햇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세로사향이 많습니다.

다른 동아리에 비해 역사가 짧은 만큼 아직까지 후원회를 비롯해 선배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복싱부도 만 10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선배들과 연락을 취해 장기모임도 만들고 후원회도 조직해 볼 계획입니다.

세계 유명 대학들이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듯이 우리 학교에서도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치과병원

발전후원회장에 金讚淑동문

林成森교수 등 이사 23명 위촉

모교 치과병원(원장 張英一)은 지난 7월 13일 공식 출범한 '서울대 치과병원 발전후원회' 초대 회장에 청아치과병원 金讚淑(치의학56-60 본회 부회장)이사장을 선출했다.

이날 당연직 이사에 李鎭仁부총장, 張英一치과병원장, 金明鎭치과병원 진료과장, 鄭炳熙치과 학장, 白純之치대병원장을 선임했다.

또 林成森(치의학58-62)모교 치의학과 명예교수, 尹熙烈(치의학59-65)전세척치과의사협회장, 朴容淑(치의학62-68)두산그룹 연강재단 이사장, 李起澤(치의학69졸)前대한치과의사협회장, 朱鍾南(법학65-69)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洪鍾杓(치의학65-71)홍예치과의원장, 吳然天(정지70-74)모교 행정대학원 교수, 盧壽永(치의학71-77)예치과



金讚淑회장·유지인 이사

병원 이사장, 李在顯(대학원72임)민주평통자치문화의 수석부위원장, 崔泰鉉(치의학87-91)완전치과병원 대표원장, 李勳東(AMP 2기)조선내과 명예회장 등 18명을 이사에 위촉했다.

향후 발전후원회는 교육 및 연구기금 마련, 사회 소의체를 지원 사업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보)

SCI 논문 등재 ... 세계 30위

3천9백46편으로 2단계 상승

지난해 모교 연구진이 과학기술 논문색인(SCI)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총 3천9백46편으로 세계 30위에 올랐다.

지난 7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포스텍이 2005년도 과학기술 논문색인 CD를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모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은 2004년도 3천1백19편보다 8백27편이 늘어난 2004년 32위보다 두 단계

높아졌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 SCI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에 2만3천5백15편의 논문을 발표해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34만8천6백86편을 발표해 세계 1위였으며 영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캐나다 순이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는 2천25편으로 1백4위, 성균관대는 1천5백68편으로 1백59위, KAIST가

1천4백52편으로 1백75위, 고려대는 1천4백41편으로 1백80위를 기록했다.

미국 하버드대는 1만1천6백3편으로 1위, 일본 도쿄대는 7천1백84편으로 2위, 미국 UCLA는 6천8백88편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또 영국 케임브리지대는 4천5백4편으로 19위, 미국 MIT대는 3천8백50편으로 32위, 중국 칭화대는 2천5백56편으로 70위였다.

우리 나라 교수 1인당 논문 수는 광주과학기술원이 5.5편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포스텍 4.01편, KAIST 3.56편, 모교 3.47편 순이다.



선배님, 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⑤

자하연(紫霞淵)

오작교(烏鵲橋)

공대 전기공학부

세계 10~20위 ... 해외 석학 평가

공과대학(학장 金道然)은 지난 6월 27일 전기공학부가 해외 석학들로부터 전 세계 전기공학과 중 10~20위 수준이며 학생들의 질적 수준 등 일부 항목에서는 세계 10위내에 든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스태프 보이드 평가단장(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은 "전기공학부는 특히 인구 1억 이하 국가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효율적인 자원과 투자 개발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5년 내에 세계 10위 진입이 가능한 좋은 위치에 이미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 석학 평가는 공대의 질적 향상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모교 공대는 이번 2학기부터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 도입해 경제, 경영, 법학 등 교양 교육과 기업에서의 인턴십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이드 단장에 따르면 모교 전기공학부는 미국의 매사추세츠공

대(MIT)·스탠퍼드대, 중국 칭화대·푸단대, 일본의 도쿄대·교토대, 영국 옥스포드대·케임브리지대 등 세계적인 대학과 큰 손색이 없으며 학생들의 자적 능력 면에서는 이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논문 발표량과 과학기술 논문색인(SCI) 인용 논문 편수 등 제량적 수치에서 미국 일부 대학에 뒤지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교수의 과중한 수업 부담, 중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부족과 외국교수와 여성교수의 부족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박사과정의 강화와 대학원생의 다양한 사회 경험 확대, 논문 편수 등 양적 부담에서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조성 등은 개선 과제도 꼽혔다.

모교 공대는 오는 8월 초부터 기계항공공학부, 화학생명공학부, 재료공학부 등 3개 학부에 대해서도 석학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대는 학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산업공학과를 산업경영공학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면서 경영학 수업을 맡을 전문가를 교수로 별도 채용할 예정이다.

30대 洪成赫박사
물리학부 조교수로

모교는 지난 7월 7일 36세인 홍성赫(물리89-94) 동문(사진)을 자연과학대학 물리학부 생물물리학 조교수로 특별 채용했다.

홍동문은 모교 대학원에서 1996년 석사학위, 2000년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일리노이대와 하워드 휴즈 메디컬 인스티튜트에서 생물물리학 영역 중 하나인 생체분자(biomolecule) 분야의 연구에 매진해왔다.



CJ인터내셔널센터 개관

국제 교류의 장으로 활용

모교 관악캠퍼스 경영대 앞에 신축된 CJ 인터내셔널센터의 개관식이 지난 7월 10일 열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CJ그룹 孫京植(법학57-61 본회 부회장)회장 등 내외빈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CJ는 지난해 6월 모교와 맺은 협약식에서 건립비용 전액인 34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4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가 약 9개월 만에 준공을

완료했다.

CJ인터내셔널센터는 7백여 평 부지에 전용면적 4백여 평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졌다. 1층에는 대회의실과 도서관, 정보 및 천목교류 확대를 위한 라운지와 인터넷 스테이션, 학생 상담

실로 꾸며졌다. 2층에는 각종 국제행사를 위한 전문 위원실과 행정지원실 등 일반 행정공간이 들어섰다.

이곳은 앞으로 모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학생들과 천목교류 공간, 국제 학술행사 개최, 해외대학 귀빈 접견 등 국제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葉)

동문기자 회재수첩

현대자동차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해협박’이라는 게 있다.

몸을 스스로 해쳐 공포 분위기를 만들거나 동정을 유발해 목적을 관철시키는 극단적인 행동이다. 누가 자해를 했다고 하면 보통 “얼마나 억울하면 그랬을까”, “저러다 죽는 것 아냐?” 하는 반응이 나오고, “좀 봐주는 게 좋겠다”는 동정어린론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자해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

얼마 전 鄭夢九회장의 석방으로 대충 일 단락된 현대자동차 수사. 현장에서 현대자동차를 취재하면서 조직, 즉 기업도 자해를 해서 목적을 관철시키는 사례를 보았다.

5월 말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 출장길에 올랐다. 현대차 취재가 목적이었다.

당시 현대자동차그룹은 구석근 회장의 석방을 위해 동분서주하다 한 가지로 방향을 정했다.

“회장이 안 계셔서 일이 안 돌아간다.”

“회장이 안 계셔서 차가 안 팔린다.”

“회장이 안 계셔서 수출도 안 되고 기업 이미지도 나빠졌다.” 등등.

당시 나온 현대자동차 보도자료 대부분이 경영공백으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여론의 동정을 끌어내려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회장이 없어 회사의 앞날이 흐려졌고 국가경제도 타격을 준다고 적극 일리는 마케팅이었다.

목적은 동정을 유발하는 것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회장 한 명 없다고 회사가 쓰러

질 정도도 참조고는 무능한가?라는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 현대자동차 담당 기자를 까리는 이런 행태를 두고 ‘자해 마케팅’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현대차 경영진을 만나면 “언제까지 자해할 거요?”라고 묻고는 했다.

독일 출장은 현대자동차가 호소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과연 정말인지, 해외에서 정말 차가 안 팔리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66

기업이미지가 나빠져서 판

매도 안 되고 새로운 사업도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회장

한 명 없다고 휘청거린다면

그 자체로 못 믿을 회사다.

99

독일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현대차 관계자는 물론, 현지인 자동차 딜러, 일본 업체 관계자, 독일 시민 등등 가능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만난 현대차 인사들은 “말도 못하게 어렵다.” 일색이었다. 현대자동차 소식이 연일 해외



李相勳

(독문91-97)

매일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나오면서 기업이미지가 나빠져서 판매도 안 되고 새로운 사업도 차질을 빚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딜러와 경쟁업체 관계자, 독일 소비자의 설명도 좀 달랐다. 안 좋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차가 안 팔리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이미지도 그렇고, 현대자동차 회장 이 비자금 조성이다, 뭐다해서 나빠진 것이지, 구석근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였고.” 독일 현지 딜러의 솔직한 이야기였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니 현대자동차의 ‘자해’가 서서히 효과를 발휘했다. 여론도

동정 쪽으로 기울었고 완고하던 사법부도 좀 바뀌는 듯 했다. 결국 鄭회장은 6월말 구속 두 달만에 석방됐다.

얼마 전 한 외국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자 현대자동차가 대회의 소재가 됐고 출장 갔다 온 이야기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은 항상 디스카운트(할인)를 받아요. 제값을 못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차를 보면 그 이유가 다 드러납니다.”

그는 현대자동차 사례를 코리아디스카운트인 연걸 지어 설명했다.

“현대차 주장대로 회장 한 명 없다고 휘청거린다면 그 자체로 못 믿을 회사입니다. 경영권이 한사람에 과도하게 집중했다는 의미니까요. 반대로 회장 석방을 위해 회사가 곤경에 처한 것처럼 일부러 몰아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회장 한사람 때문에 회사 자체가 휘둘린다는 의미니까요. 더 큰 문제는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이게 모여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빌미가 됩니다.”

물론 수많은 이유와 원인이 쌓여 생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한가지 이유로 설명하는 센터장의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 것이 가능한 기업 분위기는 내부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기에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현상인 것만은 사실이다.

동문 기고

하인스 워드에게 ‘河仁壽’ 한국이름을

미식축구 스타 하인스 워드가 두 번에 걸쳐 한국에 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홀로의 가치일 것이다. 역사의 거센 물결에 휩쓸린 한 어린, 그는 동족의 난편을 만나지 못하고 흑인 미군병사의 아들을 전 형제처럼 안고 살아야 했다.

혼혈이로서 흠에서 슬하에서 힘들게 지냈을 그가 미식축구 최우수선수(MVP)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 김영희 씨의 피속에 흐르는 유교문화의 힘이 아닌가.

한국사회에서는 혼혈이로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고 두 살 된 핏덩어리의 장래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여성 혼자서 몸으로 온갖 고통을 견디면서 오직 아들을 위해서 몸 바친 결과로 오늘날의 하인스 워드라는 영웅을 만들어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좋은 천과와 환경 그리고 스승을 찾아 세 번이나 이주했다는 맹모삼천지교라는 유교적인 교육모델을 실천한 것이 바로 그 해답이다.

하인스 워드는 입만 열면 어머니에 대한 효심의 표현을 잊지 않는다. 한국에 와 있을 때도 행복을 입고 어머니에게 큰

절을 하는가 하면, 혼혈아 복지재단에 2백20만 달러를 기부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했다. “항상 절 약하고 남에게 겸손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어느새 그의 좌우명이 됐고, 죽을 때까지도 어머니 문공을 갚을 길이 없다고 했다.

어머니에게 좋은 승용차를 사시라고 돈을 드리면, 어머니는 차를 사지 않고 저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인스 워드는 흑인 친구들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불리고, 백인 친구들은 흑인이라고 놀려 매우 힘들었지만 열심히 운동을 해 인종차별을 잊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어머니 김영희 씨는 식당 설거지, 잔디 깎기, 매점 점원, 간병인 등 하루에 세 가지나 견디기로 힘든 일을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수제비, 비빔밥, 리면 등으로 자녀를 때우며 아들을 키웠다.

하인스 워드가 성공하게 한 힘은 물림 없이 어머니의 지식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그의 효심이었을 것이다.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집념과 인내심이 그를 슈퍼볼 MVP로 만들었다.

그는 피츠버그대학에 다닐 때도 공부



金永吉

(ACAD 1071)

前국회의원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수준 높은 교양미가 풍긴다. 어머니로부터 유교적 가치관을 체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한때 한국에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나, 지금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 청년이다.

하인스 워드가 부자가 된 것도 축하할 일이다.

내년 2월 미식축구대회에 앞서 방영할 미국 CBS TV 특집 프로그램을 위해 제작된 30여 편의 2차 방면에 동참했다.

그의 살인미소 한 컷을 5초간 보여주는 데 3백만 달러의 광고료가 붙는다고 한다. 미국인의 스포츠에 대한 선호도는 미식축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농구, 야구, 골프 순이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골프의 귀재 타이거 우즈도 수입면에서는 하인스 워드보다 못하다.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부지런함, 어머니를 원망하며 뽀빠지 뽀빠지 하면서 미식축구 MVP로 성공시킨 것은 바로 한국의 어머니였다.

이 시대에 이러한 영웅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그지없이 자랑스럽다.

평택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숫자의 혼혈아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혼혈아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2, 제3의 하인스 워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효심의 모범생인 하인스 워드를 8월 3차 방한시 평택에 초대해 ‘河仁壽’라는 한국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

동 정

수 상

▲**柳宗鎔**(정문57졸 前연세대 석좌 및 특임교수·예술원 회원)=오는 9월 5일 서울 서초동 예술원 대회 의실에서 제51회 예술원상(문학부문) 수상.

▲**李星珍**(교육53-57 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한국행동과학연구소장)=오는 9월 15일 서울 서초동 예술원 대회 의실에서 제51회 학술원상(인문사회과학부문) 수상.

▲**洪性謙**(건축54-58 모교 건축학과 명예교수·중앙박물관건립위원장)=지난 6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이전개관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 산업훈장 수훈.

▲**崔鍾泰**(조소54-58 모교 조소과 명예교수)=오는 9월 5일 서울 서초동 예술원 대회 의실에서 제51회 예술원상(미술 부문) 수상.

▲**黃秉興**(법학55-59 국립극악관현악단 예술감독)=오는 9월 5일 서울 서초동 예술원 대회 의실에서 제51회 예술원상(음

악부문) 수상.
▲**朴龍安**(지질과학57-61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오는 9월 15일 서울 서초동 예술원 대회 의실에서 제51회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 수상.

▲**柳敏榮**(국어교육57-61 단국대 석좌교수·연극평론가)=오는 9월 5일 서울 서초동 예술원 대회 의실에서 제51회 예술원상(연극·영화·무용부문) 수상.

▲**沈光庚**(수의학57-63 제일바이오 사장)=지난 7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9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통합 산

업훈장 수훈.
▲**金聖結**(화학공학63-67 KAIST 교수)=오는 9월 15일 서울 서초동 예술원에서 제51회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 수상.

▲**任洪彬**(국문63-67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오는 9월 15일 서울 서초동 예술원 대회 의실에서 제51회 학술원상(인문사회과학부문) 수상.

▲**金鍾勳**(건축69-73 한미파슨스 사장)=지난 7월 1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2006년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상 대상 수상.

▲**金國默**(대학원69-76 부산대 교수·사단법인 자연사미래환경과학회 회장)=지난 7월 7일 서울 대방동 공공회관에서 뉴스웨이신문과 사단법인 대한무궁화중약안화가 공동 제정한 제2회 '장한 한국인상(과학부문)' 수상.

▲**鄭廷始**(화학72-76 오미아코리아 대표·분회 부회장)=지난 7월 13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이코노마리뷰가 수여하는 제2회 한국의 CEO대상 수상.

▲**吳再澤**(제약74-78 모교 약학과 교수)=오는 9월 15일 서울 서초동 예술원 대회 의실에서 제51회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 수상.

▲**車國憲**(화학공학81졸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지난 7월 19일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독일 마인츠대학이 수여하는 '구텐베르크 리서치 어워드' 수상.

▲**徐榮俊**(제약77-81 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6월 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과학기술부가 후원하고 한국과학재단과 서울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

▲**趙元鎭**(물리78-82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오는 9월 15일 서울 서초동 예술원 대회 의실에서 제51회 학술원상(자연과학

부문) 수상.
▲**安소현**(화학88-92 미국립보건원 발생 신경유전학 실험실 책임연구원)=지난 7월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젊은 유망 과학자 대통령상' 수상.

▲**甘宇成**(동양화89-93 배우 겸 텔런트)=지난 7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회 대중상 시상식에 남우주연상 수상.

▲**金南辰**(행정51-55 고려대 교수·광안대 초빙 교수)=지난 7월 14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인문사회분과 회원에

선출.
▲**李相福**(사회53-58 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지난 7월 13일 인기 3년의 제3기 방송위원회 위원에 임명. 14일 위원장에

선임.
▲**金禹昌**(영문58졸 고려대 명예교수·평론가)=지난 7월 6일 대한민국 예술원 정기총회에서 문학분과 회원에

선출.
▲**宋壽男**(체육교육54-58 한국미레총회 회장)=지난 7월 6일 대한

민국 예술원 정기총회에서 연극·영화·무용분과 회원에 선출.
▲**趙舜衡**(법학54-64 前민주당 대표최고위원)=지난 7월 26일 국회의원 재·보선(성북을)에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

▲**李敦熙**(교육56-60 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지난 7월 14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인문사회분과 회원에 선출.

▲**徐桂淑**(기약56-60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음대 동창회장)=지난 7월 6일 대한민국 예술원 정기총회에서 음악분과 회원에

선출.
▲**黃東奎**(영문57-61 모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지난 7월 6일 대한민국 예술원 정기총회에서 문학분과 회원에 선출.

▲**孫京植**(법학57-6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분회 부회장)=지난 7월 14일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대외산업부문)

에 위촉.
▲**鄭東潤**(법학57-63 고려대 명예교수·법무법인 흥정 변호사)=지난 7월 14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인문사회분과 회원에 선출.



▲柳華永(회화58-62 이화여대 명예교수·서양화가)=지난 7월 6일 대한민국 예술인 정기총회에서 미술분과 회원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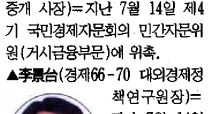
▲郭基浩(경제60-64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지난 7월 14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인문사회분과 회원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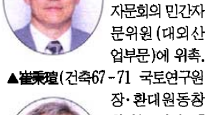
▲郭顯娥(국악64를 한국민족음악가연합 이사장)=지난 7월 6일 대한민국 예술인 정기총회에서 음악분과 회원에 선출.



▲丘月煥(사회60-67 순천향대 초빙교수·본보 논설위원)=지난 8월 3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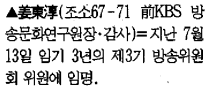
▲郭圭永(경제65-70 서울외국환중개 사장)=지난 7월 14일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거시금융부문)에 위촉.



▲李景台(경제66-7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지난 7월 14일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대외산업부문)에 위촉.



▲崔承遠(건축67-71 국토연구원장·환대원동장 회장)=지난 7월 14일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사회복지부문)에 위촉.



▲姜東淳(조소67-71 전KBS 방송문화연구원장·간사)=지난 7월 13일 임기 3년의 제3기 방송위원회 위원에 임명.



▲安在步(법학67-74 국회의원)=지난 7월 11일 서울 장실채 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의 대표 최고



위에 선출.
▲趙東成(경영67-71 모교 경영학과 교수·한국경영학회 회장)=지난 7월 13일 (사)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 이사장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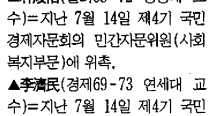
▲左承喜(경제67-71 전한국경제연구원장·모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지난 7월 12일 경기개발연구원 제8대 원장에 취임.



▲韓惠洙(경제67-71 전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지난 7월 24일 한미FTA 체제지원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명.



▲玄定澤(경제67-71 한국개발연구원장)=지난 7월 14일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거시금융부문)에 위촉.



▲朴煥佑(물리68-72 삼명대 교수)=지난 7월 14일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사회복지부문)에 위촉.



▲李濟民(경제69-73 연세대 교수)=지난 7월 14일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거시

금융부문)에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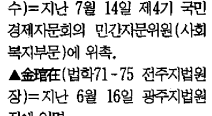
▲李柱榮(법학70-74 前경남 정부부지사)=지난 7월 26일 국회의원 재·보선(마산갑)에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



▲吳相準(경제70-74 산업연구원장)=지난 7월 14일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대외산업부문)에 위촉.



▲崔烈烈(경영70-74 서강대 대외부총장)=지난 7월 14일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거시금융부문)에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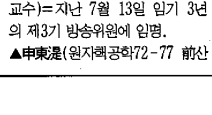
▲曹周鉉(건축71-75 건국대 교수)=지난 7월 14일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사회복지부문)에 위촉.



▲金瑔在(법학71-75 전주지법원장)=지난 6월 16일 광주지법원장에 임명.



▲權五奎(경제71-75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7월 18일 경기과천정부청사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



▲文聖院(경영71-75 삼양사 경영기획실장)=지난 7월 19일 폴라에스터 전문생산업체인 휴비스 대표이사사장에 선임.



▲金東龍(신대원71-73 한국의대 교수)=지난 7월 13일 임기 3년의 제3기 방송위원회에 임명.



▲申東濤(원자력공학72-77 前산

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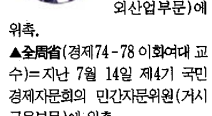
지난 7월 14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金秉達(농경제72-76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



지난 7월 5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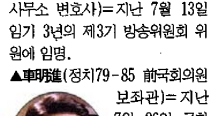
▲崔榮成(경제73-77 한국노동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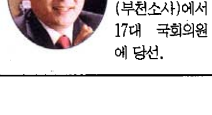
지난 7월 14일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사회복지부문)에 위촉.



▲崔正賢(농경제74-7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지난 7월 14일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거시금융부문)에 위촉.



▲朱秉亮(신문76-80 광운대 교수)=



지난 7월 13일 임기 3년의 제3기 방송위원회 위원에 임명.



▲金東基(법학83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지난 7월 13일 임기 3년의 제3기 방송위원회 위원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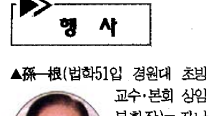
▲洪承勇(대학원83졸 인하대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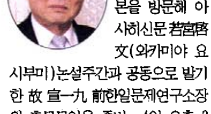
지난 7월 14일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물류경제자유무역부문)에 위촉.



▲朴錫玉(AIP 33기 前청와대 총무비서관·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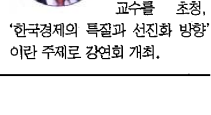
지난 7월 13일 차관급인 국회의장비서실장에 임명.



▲朴柱雄(SGS 17기 서울사회회의원)=



지난 7월 12일 제7대 서울시의회의 개원식 및 제162회 임시회의에서 의장에 선출.



▲孫一根(법학51입 경원대 초빙교수·본보 상임 부회장)=



지난 8월 3~7일 일본을 방문하여 사하신문 社報文(와카미야 요시부미)는



설청간과 공동으로 발기한 故玄一九 前한일문제연구소장의 추모모임을 준비, 4일 오후 3시 일본 동경대학 山上會館에서 추모식을 가짐.



▲尹鉉重(정치53-57 한국언론인포럼 회장)=



지난 7월 12일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모교 경제학부 安秉直 명예교수를 초청, '한국경제의 특질과 선진화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회 개최.

명사

▲金昌國(행정58일 회계제자소 이사장)=지난 7월 21일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한미 FTA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 개최.

▲李鍾憲(전문기상60-66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지난 6월 20일 서울 대방동 공공회관에서 기상산업의 날 제정기념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韓昇洙(전대원63쪽 한국물포럼 총재)=지난 7월 13일 경기 일산 한국건설기상연구원에서 한국물포럼 출범 현판식 개최.

▲韓鍾奎(회화66-70 경희대 교수)=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서울 내수동 갤러리에서 黑, 白, 線 그리고 car-

toon 에세이를 펼치다'라는 주제로 개인전 개최.

▲崔敬亨(물리교육68-72 한국고원대 교수·한국 환경교육학회 회장)=지난 7월 8~9일 공주대 원안공과대학에서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의 원동력 환경교육'이란 주제로 학술회 개최.

▲康一宇(섬유공학71-75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회장)=최근 리츠칼튼호텔에서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위한 제14회 춘계 합

동세미나 개최.

▲朴明賢(보내원74-76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한국과인트리클럽 총재·관악동 의사)=지난 7월 28~31일 경북 구룡포

소재 경북대수원원에서 제41회 전국 대학생 하계수련회 개최.

▲金和林(가학77인 마드리드실내악단 악장·바이올리니스트)=오는 8월 16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에서 뉴욕 메네스 음대 출신 동문들과 음악회 개최.

▲申敏達(기악85-89 피아노두오협회 이사 겸 성결대 겸임교수)=지난 8월 15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에서 '세계음악기행시리즈3: 나리'를 주제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한정만(서양화89-93 화가)=



지난 7월 24일 우리 나라 근·현대 화가 20명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탐방한 '화가의 집을 찾아서'와 '그 산을 넘고 싶다'(생태)발간.

▲문지형(기악93-97 KBS미디어 콘서트바토리)=지난 8월 9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배로벤, 슈만 등의 작품으로 첼로 독주회 개최.

▲金宗圭(AMP 29기 삼성출판박물관장·한국박물관협회장)=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서울 중구 동대문로에서 9개 시립

박물관 연합전시회 개최.

▲朴永淳(ACAD 43기 현대시멘트 상임교원)=지난 7월 6~1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국상조사업협의회 주최 국제세미나에 제8차 감사·감사위원을 위한 해외 특별연수단 단장 자격으로 참석.

▲安鎭元(HPM 6기 前YTN저널 편집위원 겸 대기자·칼럼니스트·시인)=오는 9월부터 부천대학에서 윤리학 강의.

화 속

(동창회관 5층 관악관에서 화회를 밝힘 동문)

■강일민(철학94-99)·하정운 씨=8월 19일 12시 30분.
■윤창수(지리교육93-97)·김자근 씨=8월 27일 14시.

신 간

동북의 역사
—韓雲史 지음



이 책은 韓동문의 스무 살 청년 시절부터 여든이 넘는 오늘날까지 60여 년에 이르는 세월을 삽화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제1부에는 중앙일보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에 2004년 2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1백10회에 걸쳐 연재했던 글들을, 제2부에는 그의 여러 신문과 잡지에 기고했던 글들을 수록했다.

역사의 격변기를 관통한 그의 삶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만나 볼 수 있다. (민음사·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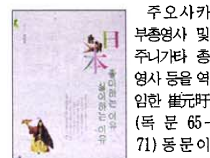
동백(冬柏),
아파트에서 기를 수 있다
—金東岩 지음

모교 농성평화공부 김해규(축산 52-56 한국과학기술원원생 원로 회원) 명예교수가 정년퇴임 후 5년 동안 참찬한 세계 각국의 동백 모종, 동백꽃 전시회와 동백 정원,



추운 겨울동간에 피는 강인한 겨울 꽃이라는 동백의 기원을 비롯한 역사, 특성, 재배환경, 분기특성과 관리방법, 증식방법까지 컬러화보와 함께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다. <도서출판 신광·값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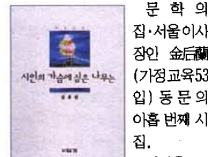
일본 좋아하는 이유
싫어하는 이유
—崔元亨 지음



주오사카 부총영사 및 주니카타 총영사 등을 역임한 崔元亨(독 65-71) 동문이 일본에 대한 감정과 별개로, 그들의 정점과 감점과 부차적인 점을 알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배울 것은 적극 배우고,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이가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에 행해 왔고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비해 합당한 것인지, 양국이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일본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한국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韓東문의 그림은 그 자체로 예술품이면서 또한 철학 서적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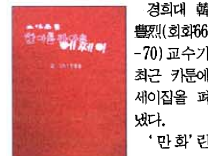
시인의 가슴에
심은 나무는
—金后蘭 지음



제로 생명존중의 정신을 여성적일목소리로 부드럽게 노래해 총56(61편)로 나눠 담아내고 있다.

자연이 우리 인생행사에 융화되고 가려야 하는 그 맥을 더듬어가면서 실로 자연과의 동체이식, 상호공생관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연 앞에 고마운 마음을 시로 되 돌려 주고 있다. <도서출판 담계·값 8,000원>

한아름 카운트 에세이
—韓憲烈 지음



경희대 韓憲烈(회화66-70) 교수가 최근 카운트 에세이집을 펴냈다.

공 연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연주회
—8월 31일 영산아트홀

송의여대 金顯花(기악70-74 피아니스트)교수(사인)를 비롯해 鄭至惠(기악84-88)·박지영(기악95-99)등 동문 서울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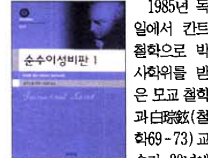


의도 영산아트홀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갖는다. <문의: 예인애 술기획 586-0945>

평을 받고 있다.

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 韓동문의 1980년~2006년 회화작품을 만날 수도 있다. <도서출판 진흥출>

순수이성비판 1·2
—白琮玟 譯



1985년 독일에서 칸트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모교 철학과 白琮玟(철학69-73) 교수가 20년에 걸쳐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대표작 '순수이성비판'을 번역했다.

국내에 이미 8종의 한국어 번역본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 일본 번역에서 많이 의존했다. 8백여 쪽의 원전 번역과 함께 각각 1백3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해제와 색인으로 구성된 이 책은 국내 연구자에 의한 칸트 철학 연구면에서 의 집대성이다. <이브넷·1권 값

28,000원/2권 값30,000원)

청명한 숨쉬기
—李東植 지음



문화대기 李東植(영교 72-76 KBS 방송문화연구원장·본보 논설위원)등문이 그동안 틈틈이 집필해온 39편의 수필을 한 권에 담았다.

李東문은 이 책을 통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 속에서 생명과 환경의 의미를 되찾고, 정과 사랑을 되살려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동대가 그리운 이유', '아무 것 도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행복할 이유', '안개 속의 명상' 등의 산문 속에 담긴 나지막하고 섬세하며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팬덤하우스·값 5,000원>

서울대 가족

朴世澈 前구양홍업 사장

2남1녀·사위·며느리·손자 등 8명이 동문

“손자들과 수박 한 조각 먹다보면 더위도 사라져”

“3년 전 아내(鄭貞順여사)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분당 중앙공원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제 옆에 키 큰 두 청년들 보이죠? 막내인 南姬(남지)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남편은 외손자 南基勳(남기훈)입니다. 둘 다 모교 자연대에 재학중인데, 형인 南基勳(남기훈)이 이공계 장학생으로 뽑히더니 南基龍(남기룡)이 아내 뒤를 따라 올해 이공계 장학생으로 입학했어요. 부모에게 등록금 걱정까지 덜어줬으니 기특하죠.”

“내리사랑”이라고 했던가. 자기 자녀가 낳은 손자가 더 예뻐 보인듯 朴世澈(형정51-55 前구양홍업 사장)동문 역시 여느 할아버지처럼 사진 속의 손자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그렇게 한참동안 손자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2남1녀를 키우면서 사정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장남인 朴起弘(박기홍)이 내가 고생하는 걸 알고는 오히려 공부에 더욱 매진하던군요. 이에 동생들도 그대로 따라가 온 좋게 셋 다 모교에 입학하게 됐고, 그런 기질을 손자들에게 물려준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재능이 뛰어나지도 않고, 사람을 잘 활용할 줄 몰라 남에게 부탁하는 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며 각자 선택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처럼 朴世澈동문의 가족 중에는 장남 朴起弘(심유공학76-80 FLASH COM 대표) 동문, 차남 朴駿培(법학77-81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동문 그리고 장녀 朴南姬(식품영양79-83)동문을 비롯해 사위 南輔祐(산업공학76-80 단국대 산업정보대학원장·모교 기성회 이사)동문과 작은며느리 宋正姬(전자공학77-81 정보통신정책본부 IT정책자문관)동문이 모두 모교를 졸업했다. 외손자



좌로부터 朴駿培·朴起弘동문, 두 명 건너 朴世澈·南基勳·南基龍·朴南姬·南輔祐동문

인 南基勳(생명과학03입)군은 현재 군북무중이며, 南基龍(화학06입)군은 입학 후 첫 방학을 만끽하느라 바쁘다고.

“과수 및 양묘업을 평생동안 하신 아버지(故 朴權作은)께서 일제시절 많은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술과 도박에 빠지는 것을 보시고 농촌진흥사업에 뛰어드셨어요. 이후 새마을운동을 펼치며 농촌을 부활시키는데 헌신하셨죠. 제가 처음엔 서울중앙청과시장(주)을 운영했는데,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등 혼란기에 정치적 압력에 의해 회사를 강제로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갚아줬다는 마음이 항상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기대 없이 법대에 들어가게 된 朴世澈동문은 그러나 점차 자신은 어릴 적부터 상업적인 기질이 다분했다고 한다.

“무엇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은 항상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70년대 후반 의류제품 생

산업체인 구양홍업을 설립해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면서 87년에는 종업원이 8백여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어요. 당시 일본에서 개발된 stand-up system 방식을 배워 국내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죠. 그러나 90년대를 전후해 노사분규가 극심해 4개 공장이 연차적으로 폐쇄되면서 회사를 폐업하게 됐어요. 그래도 ‘사업’으로 시작해 ‘사업’으로 재이력을 마감했으니 이에 만족하며 살아야죠.”

장남 朴起弘동문은 대학원 시절부터 한국 전자통신연구소에서 통신망 전문기로 활약하다가 3년 전 직접 통신회사를 설립,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비싼 나날을 보내고 있다. 차남 朴駿培동문은 법학을 전공한 뒤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해 현재 대학에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朴世澈동문 가족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하다는 것. 큰며느리 韓寶映씨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며느리 宋正姬동문은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부장·서강대 교수·미디어교육 벤처기업 ‘멀리젠’

朴世澈(형정51-55)동문가족

장남

朴起弘(심유공학76-80)

차남

朴駿培(법학77-81)

사위

南輔祐(산업공학76-80)

작은며느리

宋正姬(전자공학77-81)

장녀

朴南姬(식품영양79-83)

외손자

南基勳(생명과학03입)

南基龍(화학06입)

대표를 거쳐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IT차세대 성장동력 연구사업을 맡고 있다. 朴南姬동문도 남편은 자녀교육과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뒷정리가 맘대로 통한다고.

“南姬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늦은 나이에 의류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 단국대 의대에 지원했으나 떨어졌어요. 이후 취미로 썰로를 배우더니 아이추어 연주자들도 구성된 ‘한마음 음악회’ 단원으로 활약하며 정기공연도 갖더라고요. 무엇보다 두 손자들에게 피아노, 스키, 테니스, 수학·영어 등을 가르친 것을 보면 자신이 못다 한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자녀에게 쏟은 것 같아요.”

수학·물리학까지 전공하고 있는 외손자 南基勳군은 앞으로 우리 나라 뇌과학분야를 발전시키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사위 南輔祐동문을 알아서인지 각종 학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南基龍군은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의사의 길을 걷고 싶다고 한다.

“여름방학 때는 자연스레 3대가 자주 모입니다. 손자들과 함께 재미난 시간도 갖고, 자녀들과 못다 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녹아내려 풀리죠.”

이런 여름, 朴世澈동문 가족처럼 모처럼 만에 3대가 거실에 둘러앉아 시원한 수박을 나눠 먹으며 더위를 날려보내는 것은 어떨까?

(表)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중동창회 14대 회장단

명예회장

손 경 식(23기)
CJ/대한상의
대표이사 회장/회장



고문 (직전 회장)

박 영 준(35기)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이사 회장



회 장

김 광 석(38기)
㈜창존
대표이사 회장



수석부회장

조 정 영(45기)
SK텔레콤(주)
대표이사 부회장



고문단

기수	성명	직장	직위	기수	성명	직장	직위
1	백 신 업	6.25전쟁 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7	윤 석 민	서보물산(주)	회장
2	유 재 훈	前)신영증권	회장	9	송 병 순	(주)JAREKO	대표이사
4	장 성 환	前)한국우역진흥공사	사장	31	조 내 벽	前)라이프그룹	회장
6	이 회 립	동양화학그룹	명예회장	45	김 정 국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총장

부회장

 김 감 보(37기) 삼양식품(주) 대표이사 부회장	 김 인 구(37기) 유형상사(주) 대표이사	 김 상 민(37기) 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이사장	 윤 영 석(37기) 두산중공업(주) 부회장	 황 경 로(37기) 한국미용협회 대표이사 회장	 손 병 두(37기) 서강대학교/총장	 이 영 숙(37기) 한·핵심포럼 대표/회장	 안 준 선(37기) 한국역사문화재단 대표이사 회장	 최 수 부(37기) 경동대학교 대표이사 회장	 장 문 엽(37기) 연세대학교 대표이사 부회장
 김 승 유(39기) 하나금융지주/회장	 임 도 수(20기) 비엔하인트 대표/회장	 김 학 진(21기) 제일은행 대표/회장	 박 중 현(23기) 한국관광공사 대표이사 사장	 유 한 섭(23기) APEX ADVISORS/회장	 김 현 숙(25기) 동양생명(주) 대표이사 회장	 박 찬 범(26기) 아시아나항공(주) 대표이사 회장	 정 팔 도(26기) KPO 대표이사 회장	 윤 석 김(27기) 종근당/회장	 이 완 군(27기) 신성아미엔 대표이사 회장
 홍 한 기(27기) SK/대표이사 회장	 이 동 준(28기) 코웨이 대표/회장	 전 선 신(28기) 스카이72 대표/회장	 조 앙 호(29기) 한진그룹 대표/회장	 서 석 훈(30기) 동원생명 대표/회장	 이 구 택(31기) POSCO 대표/회장	 피 홍 배(31기) KPO 대표이사 회장	 장 계 각(33기) KPO 대표이사 회장	 조 시 연(35기) KPO 대표이사 회장	 심 계 진(36기) KPO 대표이사 회장
 이 대 봉(36기) KPO 대표/회장	 이 장 한(37기) KPO 대표/회장	 조 현 재(38기) 대원생명 대표/회장	 박 세 환(39기) KPO 대표/회장	 이 봉 훈(40기) KPO 대표/회장	 정 재 봉(40기) KPO 대표/회장	 한 규 범(42기) KPO 대표/회장	 이 전 곤(45기) KPO 대표/회장	 조 희 연(47기) KPO 대표/회장	 이 원 우(49기) KPO 대표/회장
 이 원 도(50기) KPO 대표/회장	 김 형 진(51기) KPO 대표/회장	 박 재 갑(51기) KPO 대표/회장	 이 변 우(52기) KPO 대표/회장	 김 유 환(54기) KPO 대표/회장	 이 채 욱(54기) KPO 대표/회장	 신 훈(55기) KPO 대표/회장	 이 기 태(56기) KPO 대표/회장	 정 광 훈(57기) KPO 대표/회장	 고 호 곤(58기) KPO 대표/회장

감사

 이 병 재(49기) 비엔하인트 대표이사 사장	 신 찬 수(45기) 상화회계법인/회장
--	--

총간사장

 정 광 현(40기) KPO 대표/회장
--

집행간사

 강 창 구(46기) 일진생명 대표/회장	 심 재 두(47기)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최 규 수(52기) 비엔하인트 대표/이사	 박 성 희(54기)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안 장 soon(57기) 한대중공업 대표/사무이사
---	---	--	---	---

AMP 증동창회 각기별 임원진

기수	각기동창회	이름	회사명	직위
1	회 장, 간 사 장	양성욱	한국유아사상사(주)	대표이사 회장
2	회 장	유재홍	한국신용증권	회장
3	수 석 부 회 장	조인성	한국갑골공업(주)	대표이사 회장
4	회 장	황국영	장수환씨대중회	회장
5	회 장	심갑배	삼익THK(주)	대표이사 부회장
6	회 장	박남배	동화산업(주)	대표이사
7	회 장	박남배	성일산업(주)	회장
8	수 석 부 회 장, 간 사 장	유중근	중앙방수기업(주)	회장
9	회 장	공대식	주대영테크	대표
10	수 석 부 회 장	김성규	전남모크	대표이사
11	회 장	김정현	청도노경(주)	대표이사 회장
12	회 장	김정현	한국해의기술공사(주)	회장
13	수 석 부 회 장	김민규	유용상사(주)	대표이사
14	회 장	홍광철	우병만	대표이사 사장
15	회 장	김성민	학교법인 서경대학원	이사장
16	회 장	정재성	위Top Bio	대표이사
17	회 장	고시욱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18	수 석 부 회 장	이성현	삼정종합건설(주)	전무이사
19	회 장	이철용	에그로	대표
20	회 장	박유재	우에네스	대표이사 회장
21	수 석 부 회 장	김진성	에비맥 공군	소장
22	회 장	전홍권	우일테크로이딩	대표이사 사장
23	회 장	김정현	영진중공업(주)	회장
24	수 석 부 회 장	최기원	한인통상(주)	대표이사
25	회 장	권구성	한국고소모화장품	대표이사 사장
26	회 장	황경로	한국국방공업(주)	대표이사 회장
27	수 석 부 회 장	윤영열	신경건설공업(주)	회장
28	회 장	이준남	새한비철금속(주)	대표이사
29	회 장	한성중	우가나리	회장
30	수 석 부 회 장, 간 사 장	정환성	우글라리	대표이사 회장
31	회 장	신용용	우병만	대표이사 회장
32	수 석 부 회 장	박순일	우대미디어	회장
33	회 장	김준근	우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34	회 장	정영근	우충여사	대표이사 회장
35	수 석 부 회 장	조홍권	우미건설	대표이사 사장
36	회 장	임창성	서울기건(주)	대표이사
37	회 장	김희오	우오성식품	회장
38	수 석 부 회 장	김기웅	우우신기계제작소	대표이사
39	회 장	정우영	우우연도국제해양개발(주)오신캐슬	대표이사
40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41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42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43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44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45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46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47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48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49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50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51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52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53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54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55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56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57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58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59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60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61	회 장	정우영	삼우정(주)	대표이사

기수	각기동창회	이름	회사명	직위
31	회 장	황두열	한국석유공사	사장
32	회 장	박순철	KSO(주)	대표이사 회장
33	회 장	심재강	태강산업(주)	사장
34	수 석 부 회 장	이봉관	우사회건설	회장
35	회 장	김종섭	우스페코	회장
36	회 장	서영수	우스미라	사장
37	회 장	한영수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38	회 장	김정현	우한영외인	부회장
39	회 장	이인정	(사)대한사한연맹, 우태인	회장, 대표이사
40	회 장	김정현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사장
41	회 장	조남조	한국성서대학교	교수(교양학부)
42	회 장	강봉희	우세오여협	회장
43	회 장	홍사환	동호개발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44	회 장	신강일	우비드소프트	대표이사
45	회 장	조현제	대한솔루션공업사	대표이사 사장
46	회 장	홍종표	S-Oil(주)	상임이사
47	회 장	김성택	ULIM건설(주)	회장
48	수 석 부 회 장	박부일	우다건설	대표이사
49	회 장	정재철	우우진로지스틱스	회장
50	회 장	유해훈	두일전자통신(주)	회장
51	회 장	정재철	삼광유리공업(주)	상임이사
52	회 장	정재철	뉴로메딕스(주) - 실로암(주)	대표이사 회장
53	회 장	박성우	우보합개발원	원장
54	회 장	손인국	아구산업(주)	대표이사
55	회 장	임성주	에코그림/세븐미운팅그룹	고문/부회장
56	수 석 부 회 장	노재근	우코아스(주)	대표이사 회장
57	회 장	황기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58	회 장	유준배	우중상업트레이드	대표이사 회장
59	수 석 부 회 장	김진형	우병만, L&F	대표이사 사장
60	회 장	윤종현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61	회 장	이종호	영림목재(주)	대표이사
62	수 석 부 회 장	이종호	우한영외인	경역고문
63	회 장	유한인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64	회 장	남	우한영외인	회장
65	수 석 부 회 장	김관영	GST(주)신일/우에프티	회장
66	회 장	이계문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67	회 장	정우현	우한영외인	회장
68	회 장	김정현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69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70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71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72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73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74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75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76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77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78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79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80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81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82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83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84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85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86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87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88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89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90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91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92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93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94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95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96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97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98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99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100	회 장	최정식	우한영외인	대표이사

건강을 지켜주세요

배·은행·무·도라지가 환절기 보약

立秋(8월 8일)를 넘었으니 절기상으로는 벌써 가을이다. 짐을 불태웠던 관악캠퍼스에도 천고마비의 가을 기운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이곳 병원은 여름·가을 환절기에 접어들면 환자들이 급증한다. 그것은 절기상의 기후특징과 관련이 깊다. 한의학적으로 熱과 燥가 지나치고 습한 기운이 많은 여름에 비해 가을은 건조한 기운이 지배하는 계절이다. 따라서 우리 신체도 점차 건조해진다. 특히 과음과 흡연, 격한 운동, 자극적인 음식 섭취, 장시간 컴퓨터 사용 등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열이 발생해 체내 진액은 소모되고 몸은 더욱 건조하게 된다.

또 가을철은 밤낮의 기온과 습도차이가 심하다. 체력소모가 많은 여름철에는 지나친 체온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물질대사를 촉진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을 줄여 체내의 열생산을 억제한다. 그러다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접어들면 여름철에 알맞게 설정된 우리 몸의 시스템은 환절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 전환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환절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쉽게 피로해진다. 뿐만 아니라 면역 시스템도 저하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로하면,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 등 크고 작은 질병에 쉽게 걸리고 각종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은 환절기가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환절기를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무더운 여름철에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에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

져 있을 수 있으므로 순한 맛으로 입맛을 돌리고 가을에 풍성한 배, 은행, 무, 도라지 같은 계절음식과 따뜻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환절기 적응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모든 병이 그러하듯 질병이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환절기를 이기기 위한 최선의 보약은 뭐니 뭐니 해도 평소의 습생이다. 평소



崔康珍

(경영84-90)

강남 은누리한의원장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과음과 과로, 흡연을 피하고 맑은 가을 햇빛 아래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신체리듬이 원활해지고 기분도 한층 상쾌될 것이다. 아무리 건강한 체질을 품부받은 젊은이라 할지라도 무절제한 생활과 방탕한 생활은 결국 파멸만을 초래한다. 무엇보다도 항상 여유 있는 마음과 규칙적인 생활로 자연을 벗삼아 하루하루의 생활을 즐기고 감사하는 생활습관이 관악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꿈꾸는 無病長壽의 비결이며 최상의 환절기 보약이 아닐까.

(연락처 : 573-8375)

추억의 창

전등 꺼지면 외등 벗삼아 그림에 몰입

全榮華(회화48-58)동국대 예술대학 명예교수

1994년 장년퇴임 후 고향인 천안 근교의 작업실에서 작품활동도 하며 때론 알알이 열린 포도송이를 보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즐거웠던 미술대학 시절을 회상해 본다.

미술인이 '환생'이 취급을 받던 시절, 부모님은 "이 다음에 어찌하고, 고생문이 뵈는데..." 하시며 모교

봉대에 가라고 하셨다. 고심하던 중 부모님께 서울대에 가려면 서울에서 모든 과목을 정리해야 한다는 구실로 임시 한달 반 전에 상경했다. 막상 갈 곳이 없어 주저주저하던 차에 전안출신인 任洪享선배의 도움으로 미술학원(중앙미술연구소)과 하숙까지 구할 수 있었다.

1949년 서양화와 함께 소식을 들었지만 그 기쁨도 잠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 소식을 부모님께 알릴 수가 없어서 방황을 했다. 등록일은 다가오는데 병어리 병가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모교에 합격했으니 등록금은 주지만 집에서 통학하라고 하셨다.

지방 출신인 나는 갈 곳도 없고 친인척도 없으니 실기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그림 공부에 매진했다. 경비원에게 꾸중도 들었지만 밤 12시 통곡 시간이 있어서 실기실에서 그림을 그렸고 전등이 꺼지면 창 밖의 외등 불빛을 벗삼아 그림을 그리는 법을 익혔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실기실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쟁이 났다며 거리는 우왕좌왕 난리였고, 군인들은 즉시 귀대하라는 라디오 방송과 사이렌 소리로 북새통을 이뤘다. 26일 오후에 집으로 가기 위해 종로를 지나가다가 화방에서 화구를 반대에 팔고 있어서 구입하고 나왔는데 이미 청량리는 피난민의 인파로 발



한도후 미대 현관에서 선후배와 함께 (좌로부터 다섯 번째 필자)

디딜 곳이 없었다. 27일 새벽 천안에 도착하니 한강철교가 폭파됐다는 뉴스가 유난히 크게 들려 왔다. 그 후 파란길에 미8군 전자부대에서 'painter'로 일하게 됐다. 미군요청으로 가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전쟁 중에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은 셈이다.

그러던 중 휴전 소식을 듣게 됐다. 1953년 늦은 봄 그리워하던 미술대학(부산 송도교사)에 2학년으로 복학하고 후배들과 새로운 시작을 하며 안정을 되찾았다.

단기 4282년(1949년) 70여 명의 입학 동기 중 졸업 시기와 학년은 달랐지만 재회의 기쁨으로 姜泰成·權純亨·金瑞鳳·南慶淑·南炳祐·盧元富·朴大淳·沈竹子·李英熙·鄭鼎施등문과 白瑛秀·李命球·鄭寅珠등문, 홍익대로 편입한 羅憲榮·田鎭鎭등문, 일찍 사회활동을 한 權泰宣·李荷雨등문 등 10여 명은 82화를 만들어 전시회도 개최하며 친목회를 유지하고 있다.

1956년 졸업 후 50년의 작품활동과 교직생활을 통해 우수한 작가와 교수 등 수천 명의 미술인을 배출하고, 특히 대학에서 강의 및 창작 활동을 한 것과 별개로 대학에서 한국화 특강을 한 것이 보람으로 남는다. 또 국내외 개인 초대전을 비롯해 수많은 단체전은 내 생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장학빌딩 건립기금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54줄)
◆ 10억원
△곽영필(토목공학56-60)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종(경제학50-63)
△김종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오동영(조선학공54인)
·김찬숙(치의학56-60)
△정계영(상학61-66)
△홍성대(수학57-63)
◆ 2억원
△강신호(의학48-52)
◆ 1억원
△김문현(상학58-64)
△나공득(상학56-61)
△노인환(경제학54-58)
·최한영(기계공학60-64)
△명태원(기계공학46-50)
△박일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서정환(법학51-55)
△최오영(영어공67-71)
△오홍조(치의학56-61)
△유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수백(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준행(심유공학48-54)
△이지호(의학77-83)
△이혜원(행정학51-55)
△장중환(의학60-76)
△전동훈(수리학52-56)
△정윤환(의학56-62)
△정중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심유공학59-64)
△최두환(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심유공학58-64)
△SNUA해당클래닉센터

◆ 8천만원

△엄병윤(의교학60-64)
◆ 5천만원
△공대식(기계공학60-64)
△김중현(정치학55-59)
△마국철(공학교육68-72)
△유종환(법학50-54)
△이승준(심유공학56-60)
·이정원(자원공학67줄)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전문기상학69줄)
△이종원(경제학50-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그린장학회
△일산회:
·김진희(축산학50-55)
△한우리SIM

◆ 3천만원

△남정현(건축학57-61)
△박종일(영어교육60-64)
△유석봉(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줄)
◆ 2천만원
△김일원(건축학61-65)
·최미백(상학66-70)
△김재복(약학52-56)
◆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 1천1백만원
△정해남(법학72-76)
◆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재구(약학58-62)
◆ 1천만원
△강종현(법학71-78)
△강창수(기계공학64-69)
△강영현(토목공학61-65)
△권동순(수학47기)
△권학용(영어불문50-63)
△김기훈(법학58-62)
△김민준(수학62-66)
△김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종갑(법학74-78)
△김용중(의학64-71)
△김윤복(경제학68-70)
△김중서(경제학58-63)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문대원(경영학71-75)
△문준성(시물공학86-92)
△박명환(영어교육61-65)
△박준우(의학75-81)
△박희원(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박시작(경영학전40-42)
△변기원(의학51-57)
△성백전(토목공학52-56)
△송병호(광산학59-65)
△신준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심이백(화학공학57-63)
△안 훈(수리학53-57)
△안태대(전기공학57-61)
△오윤실(인학60-66)
△윤세균(경제학45-51)
△윤영성(경제학58-64)
△윤화진(축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병계(경대원69줄)
△이병형(화학67-71)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이형하(법학74-78)
△장무환(경제학45-51)
△장지준(의학70-77)
△조길웅(HPM 14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남해(상학52-56)
△최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정길(금속공학52-56)
△하영기(정치학44-48)
△황경로(AMP 11기)
◆ 5백만원
△이현구(AMP 52기)
◆ 3백만원
△김진호(법학50-58)
△김영수(법학60-64)
△하재규(농학53-57)
◆ 2백만원
△이동수(건축학61-66)
△이준호(법학57-61)
△한기범(AMP 42기)
△허영호(전자공학71-75)
◆ 1백20만원
△이준원(GLP 11기)
◆ 1백10만원
△김우현(행정학61-65)
△이정자(국어국문50줄)
◆ 1백만원
△강영복(상학51-55)
△강종호(의교학76-83)
△강홍섭(화학공학59-63)
△고 건(정치학56-60)
△김병우(경제학52-56)
△권광준(법학61-65)
△권이희(의학41-47)
△김교성(전기공학51-55)
△김기복(법학69-73)
△김민원(수리학50-54)
△김동찬(생물교육51-55)
△김방원(상학52-56)
△김정기(법학54-58)
△김영수(경제학58-62)
△김영재(법학57-62)
△김윤재(상학54-58)
△김인준(법학56-60)
△김재홍(경상법전39줄)
△김정원(금속공학58-64)
△김주홍(전기공학58-63)
△김지호(화학공학55-59)
△김진여(법학55-60)
△김진우(약학54-58)
△김태원(제약학71-75)
△김형기(국어교육72-76)

△김홍중(수학74-78)

△문일환(치의학65-71)
△문창규(정치학68-72)
△박석홍(불어불문63-67)
△박상숙(의학65-71)
△박성철(법학75-79)
△박순여(치의학66-72)
△박영원(지리학74줄)
△박종철(물리학61-66)
△박준서(법학58-64)
△박태원(정치학46-50)
△박종철(물리학61-66)
△박준서(법학58-64)
△박태원(정치학46-50)
△AMP 25기
△석준형(물리학67-71)
△심장수(법학70-74)
△안치득(전자공학76-80)
△오복동(법학57-63)
△오태환(법학53-57)
△윤원진(HPM 6기)
△이경재(화학59-63)
△이근수(산대원69줄)
△이문구(의학65-69)
△이두현(행대원74줄)
△이병국(의학54-60)
△이성호(AIP 32기)
△이영우(공업교육64-68)
△이인혁(심유공학54-58)
△이일훈(상학55-60)
△이종복(응용미술62-66)
△이주환(역사교육53-57)
△이준환(의학51-57)
△이창호(기계공학55-61)
△이원주(상학59-65)
△이학숙(회화54-58)
△이호인(응용화학66-70)
△장철식(심유공학49-55)
△장해실(상학69-73)
△장병일(영어교육66-73)
△전발근(영어교육47-52)
△정경도(행대원65-67)
△정병희(의학65-71)
△정민섭(의학59-63)
△이영기(법학71-75)
△정병배(정치학49-53)
△정상조(행정학57-62)
△정동찬(수리학56-60)
△정정경(행정학61-65)
△정홍수(가정교육59-63)
△정희준(법학57-61)
△조무재(사대원65-67)
△조병철(심유공학59-65)
△조원규(생물학48-52)
△최철근(전기공학45-51)
△최영준(토목공학67-74)
△진종일(의교학62-66)
△최동식(법학76-80)
△최희원(상학48인)
△최종덕(물리학52-56)
△최태원(의학77-83)
△홍성원(토목공학62-66)



△홍순경(AIP 5기)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7월 24일까지 출연
해주신 분)

◆ 50만원

△박일재(화학공학78-82)
△신동우(언어학71-75)
△오진환(법학75-79)
◆ 40만원
△김대식(생물학51-55)
◆ 30만원
△김철중(물리학70-74)
△김학근(법학75-79)
△류태수(상학65-69)
△소병수(사회학76-80)
△이건호(농경제학67-72)
△이근형(독어독문78-84)
△정소성(불어불문64-69)
◆ 20만원
△김경돈(영어교육70-77)
△김현진(법학50-58)
△유국화(사회학74-78)
△이서우(경제학63-67)
△정규수(물리학63-67)
△최성근(법학78-82)
△허영섭(지리교육74-78)
◆ 10만원
△김승준(사법학85-89)
△강영현(농경제학69-76)
△수현수(법학67-75)
△권오덕(사회사업63-68)
△권민진(사법학82-86)
△최 유(약학60-64)
△김경림(법학60-64)

△김국일(사법학86-91)

△김본원(수리학63-67)
△김선준(약학61-65)
△김영관(체육교육67-71)
△김원근(공법학85-89)
△김영관(행정학52-56)
△김원주(행정학53-57)
△김재호(신문학85-91)
△남기민(사회사업69-73)
△문동성(독어독문69-73)
△민동진(철학46-50)
△박민철(사물학65-72)
△박병명(법학74-78)
△박형준(국어교육64줄)
△신준성(경영학71-75)
△신현식(건축학50-54)
△유병서(농경제학59-65)
△이근형(독어독문78-84)
△이기서(법학76-80)
△이신규(역사교육59-63)
△이윤식(공법학83-87)
△이민진(사법학83-87)
△이준규(법학72-76)
△이호원(법학71-75)
△정창호(사법학85-89)
△조원환(상사학71-73)
△차유경(법학73-80)
△최기홍(행정학62-66)
△최강섭(법학78-82)
△최남규(경제학60-64)
△최성종(경제학66-67)
△최상기(물리학74-78)
(2006년 6월 24일부터
2006년 7월 24일까지 출연
해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06년 6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6. 3. 13.~6. 28) · 일반(06. 3. 5.~6. 28)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illegible]

상임이사

△李載沅삼대동창회장은 20만원
△林香淳사대동창회장은 20만원
△鄭英彬수대동창회장은 20만원
△白純치대동창회장은 20만원
△河斗淵대하원 동창회장은 20만원
△崔秉堯한대원 동창회장은 20만원
△金光石AMP동창회장은 20만원
△黃善堯ALP동창회장은 20만원

하늘

△이 사 明泰鎡=30만원
△이 사 安聖哲=30만원
△이 사 朴明潤=30만원
△이 사 金秉順=30만원
△갑 사 金一燾=30만원

평생회비

(이사) △서재환 의대56

(일반)	△강범구 농대 ⁷⁶
△강영진 공대 ⁶¹	△고형구 법대 ⁵⁸
△권오규 상대 ⁷¹	△권교민 약대 ⁵⁹
△관철헌 경영 ⁷⁸	△김근문 치대 ⁵⁵
△김상진 공대 ⁶⁰	△김승호 AIP ³
△김영진 법대 ⁵⁸	△김유리 자연 ⁷²
△김인기 수의 ⁵⁵	△김재환 법대 ⁸²
△김종하 미대 ⁵⁸	△김지현 시대 ⁷⁰
△김진희 약대 ⁵⁵	△김정숙 의대 ⁷⁸
△김호국 공대 ⁴⁸	△김희국 공대 ⁶⁸

김희경 논리	다나경 수
김남수 경영	다원원 의대
김상진 물리	다영홍 AIPL
김문조곤 공대	다문학지 미대
박남갑 경영	박달수 공대
박석진 자연	박성은 공대
박익서 물리	박주원 GLPI
박정현 미대	박창광 AIPL2
박석근 사대	박재민 AIPL2
서정식 상대	서정식 AMP3
손계승 시화	손봉관 법대
손승재 상대	손승현 공대
송정희 법대	송신재 공대
안병서 상대	안현창 공대
안양수 법대	오세현 공대
오원일 상대	오유정 공대
윤국현 AMP6	윤영희 미대
윤원일 상대	윤은나 공대
이광근 자연	이근남 공대
이동욱 치대	이명식 의대
이병숙 AI2	이성민 상대
이성일 의대	이성철 상대
이성진 AMP2	이슬을 공대
이승동 공대	이영선 자연
이욱재 AIPL	이원수 사대
이위경 상대	이민선 치대
이재영 공대	이재현 인문
이지영 공대	이해동 AI2
이현수 상대	임정현 자연
장낙수 SCS	장현우 상대
전강식 법대	정보태 공대
정성태 상대	정형태 사대
조명환 물리	조무현 공대
조장희 공대	조정현 공대
조주미 상대	조주호 상대
조지창 AIPL2	조경명 AIPL2
최경환 유대	최희광 물리
최선석 HPLM1	최원석 의대
최정용 자연	최형철 상대
최혜조 상대	최희선 GLPI
추인석 미대	한유정 물리
추연자 미대	홍종률 물리
홍희만 상대	

이 사

◆인문대 ▲강병국 ▲강은평
▲김경환 ▲구기현 ▲김광희
▲김명철 ▲김갑배 ▲김만영
▲김원희 ▲김학래 ▲박득숙
▲박찬진 ▲변연익 ▲최종훈
▲손예철 ▲유수정 ▲원준호
▲유성희 ▲유재현 ▲이기현
▲이범규 ▲이세영 ▲이상훈
▲이장웅 ▲이택기 ▲임민준
▲조영우 ▲조필환 ▲조경태
▲차천희 ▲최규구 ▲최석선
▲최태영 ▲한계복 ▲홍기선
▲홍승진

◆사회대 ▲강명환 ▲구영수
▲김 열 ▲신 영 ▲김광배
▲김기영 ▲김석자 ▲김소영
▲김지현 ▲김지영 ▲김지현

△김강민(金剛敏) △김재홍(金在洪) △김정현(金正顯)
△류호성(柳浩成) △문호준(文浩俊) △박경재(朴敬在)
△박성현(朴成顯) △박희준(朴熙俊) △박희준(朴熙俊)
△박지현(朴智顯) △박정현(朴正顯) △변보현(邊甫顯)
△서석연(徐錫演) △신재현(申在顯) △신성림(申成林)
△엄현준(嚴顯俊) △우인영(吳仁映) △유상진(柳相鎭)
△유용욱(柳龍旭) △육경희(陸敬喜) △이상화(李相華)
△이동준(李東俊) △이민준(李敏俊) △이신화(李新華)
△이성진(李成鎭) △이종훈(李鍾勳) △이재환(李在煥)
△이주호(李周浩) △이철휘(李徹煥) △임규욱(林圭旭)
△임종준(林宗俊) △정승현(鄭承顯) △정승현(鄭承顯)
△정승현(鄭承顯) △정준환(鄭準煥) △정병현(鄭秉顯)
△정봉교(鄭奉杓) △정석규(鄭錫圭) △정성민(鄭成敏)
△정택재(鄭澤在) △정현민(鄭顯敏) △최경진(崔敬鎭)
△최금덕(崔金德) △최병길(崔秉吉) △최희성(崔熙成)
△최익진(崔逸鎭) △최영민(崔英敏) △최정현(崔正顯)
△홍대현(洪大顯) △한건진(韓健鎭) △함정표(咸正杓)
△홍차클(洪差庫) △홍성규(洪成圭) △홍재욱(洪在旭)
△황기호(黃基浩)

◆자녀단 ◆강강지마 ◆강강무림
◆강남누수 ◆삼일열현 ◆삼백불광
◆문종지상 ◆삼백귀국 ◆삼백불상
◆배은은배 ◆송세제 ◆산간현정
◆유구기념 ◆윤송석 ◆이순준
◆이유정 ◆이정현 ◆이희의
◆이태원 ◆이현진 ◆정성진
◆조호재 ◆전 민호 ◆홍조권
◆최지환 ◆최현두 ◆최홍현
◆◆강초대 ◆광명사 ◆강개배
◆강문은 ◆남은산 ◆박관순
◆박명기 ◆성숙향 ◆신산문
◆이명선 ◆이산기 ◆이윤환
◆◆점령 ◆강홍구 ◆국기호
◆강상대 ◆강신서 ◆강기호
◆강명열 ◆김동우 ◆김일환
◆김윤호 ◆김재일 ◆김자환
◆김준호 ◆김진현 ◆박기환
◆박종원 ◆박현우 ◆백복환
◆서정현 ◆송영태 ◆우승환
◆오정호 ◆왕영현 ◆우성환
◆원효상 ◆유병두 ◆유재환
◆이성훈 ◆이윤호 ◆이인환
◆재가환 ◆이현영 ◆이호환
◆장영철 ◆정기환 ◆조도환
◆최영환 ◆최현우 ◆최병두
◆최성환 ◆최재환 ◆최태환

△삼수현⑦
◆판대 △강 관현 △강구산현
△강남현 △강명현 △강상현
△강석촌현 △강순숙현 △강영현
△강의현 △강정현 △강철현
△강대군현 △강효현 △강화현
△강화대현 △고 건현 △고봉석현
△고승현 △고영현현 △고영현현
△고영현현 △고유진현 △고재흥현
△고재흥현 △공방현현 △공매현
△구본읍현 △구영현현 △구영현현
△구창현현 △구형호현 △구평현현
△관산현현 △관오현현 △관유현현
△관화현현 △강경매현 △강경매현
△강경매현 △강경매현 △강가남현
△강가동현 △강가현현 △강노수현

△김대현 △김낙수 △김백영
△김태환 △김덕택 △김동문
△김도훈 △김동진 △김동준
△김명서 △김병기 △김광운
△김백영 △김봉기 △김복용
△김박 △김보성 △김부국
△김석두 △김선배 △김성근
△김성호 △김성환 △김승민
△김시경 △김신범 △김남영
△김영수 △김영종 △김영표
△김왕자 △김용호 △김원배
△김완희 △김완수 △김윤희
△김유철 △김준연 △김재홍
△김강인 △김재만 △김재춘
△김창기 △김정현 △김부영
△김정옥 △김지영 △김종배
△김종배 △김종기 △김종우
△김종욱 △김종욱 △김종익
△김종현 △김종호 △김주영
△김준서 △김준호 △김지현
△김진근 △김진무 △김진열
△김진현 △김창호 △김종오
△김태준 △김태훈 △김종오
△김학익 △김학익 △김관음
△김한웅 △김한영 △김영환
△김형욱 △김호동 △김호성
△김호수 △김호중 △김호진
△김환기 △김희수 △남궁은
△남승우 △남승우 △남승우
△남인의 △노병환 △노상현
△노철규 △노태건 △노태환
△노하늘 △두승훈 △류영준
△미상현 △문광순 △문수길
△문순호 △문영기 △문영준
△문영환 △문정수 △문정수
△문장훈 △문종길 △민경탁
△민동호 △최경환 △공광호
△박근준 △박금룡 △박기현
△박득철 △박봉우 △박삼수
△박상규 △박상식 △박승연
△박영복 △박영수 △박옥귀
△박윤규 △박유현 △박이현
△박일구 △박일준 △박이현
△박일재 △박재규 △박재규
△박정훈 △박정수 △박정훈
△박조현 △박준태 △박준철
△박지형 △박진수 △박찬현
△박찬모 △박찬원 △박찬원
△박태권 △박태원 △박흥준
△박희규 △박희재 △박희우
△박희곤 △박희철 △배무현
△배상기 △배시훈 △배승호
△배재철 △배재철 △배석우
△백벽철 △백향배 △변동필
△변선호 △변영준 △부주준
△서간호 △서남규 △서동원
△서두현 △서상기 △서선현
△서양식 △서우혁 △서현호
△선사직 △선치훈 △설영준
△설원길 △선나준 △선나준

△성원형△△성원정△△성원고△
△성원경△△성원기△△성원악△
△성수광△△성수리△△성수광△
△승배원△△승상전△△승우월△
△승혜성△△승하전△△승솔상△
△승효상△△승정호△△승신소△
△신산호△△신성수△△신홍식△
△신촌철△△신대룡△△신명명△
△심옥원△△심자대△△심재원△
△심한배△△신각주△△신안주△
△신안소△△신안동△△신안소△
△신안소△△신양동△△신양화△
△임시현△△임곡수△△오병권△
△오병태△△오수계△△오수춘△
△오계관△△오정일△△오창석△
△오대규△△오대원△△오우송△
△우진대△△원상발△△원운상△
△우영진△△우유진△△우유병△
△우준승△△우유숙△△우유재△
△우대환△△우원식△△우홍렬△
우 배△△우문진△△우문선△
△우윤재△△우유옥△△우윤하△
△우재호△△우조덕△△우윤수△
△우골문△△이 린△△이 천△
△이 철△△이건평△△이경순△
△이철문△△이대원△△이교상△
△이규정△△이근관△△이기철△
△이민환△△이달관△△이대락△
△이대우△△이대원△△이대선△
△이동환△△이달환△△이범호△
△이병대△△이봉주△△이봉환△
△이성룡△△이성광△△이성준△
△이성준△△이성현△△이서형△
△이석재△△이인석△△이성오△
△이성일△△이수관△△이신욱△
△이여중△△이영우△△이용식△
△이용우△△이용준△△이원순△
△이윤섭△△이윤영△△이인선△
△이정화△△이재경△△이재욱△
△이정열△△이정일△△이종대△
△이종민△△이종호△△이종호△
△이준복△△이준승△△이지수△
△이준복△△이창호△△이국경△
△이태동△△이팔환△△이팔환△
△이현관△△이호용△△이홍식△
△이형열△△이현준△△이흥배△
△이희남△△이희관△△이희영△
△이원기△△임기석△△임민수△
△임시환△△임상진△△임승진△
△이희남△△장기재△△장동욱△
△장영배△△장진암△△장흥균△
△전현국△△전준하△△전홍우△
△전호철△△전희상△△정경주△
△정봉준△△정병철△△정진철△
△정성근△△정성준△△정원배△
△정무나△△정용호△△정익우△
△정익나△△정재국△△정정용△
△정필주△△정주희△△정대호△
△정민모△△정혜배△△정영권△
△정영일△△정호균△△정조상△
△조광선△△조규남△△조덕상△
△조동호△△조준성△△조영주△
△조재복△△조원호△△조우근△
△조응수△△조재범△△조재현△
△조호진△△조현관△△주상진△
△주영재△△주재휘△△주진균△
△주지호△△주진택△△주진대△
△주진복△△주진철△△주근오△
△주동욱△△주삼목△△최 철△
△최기환△△최기건△△최희경△

△이병식① △이상득① △이상운①
△이석우① △이성열① △이수신①
△이순석① △이승섭① △이승용①
△이연희① △이영진① △이영희①
△이인욱① △이일훈① △이정호①
△이재국① △이재원① △이정재①
△이종환① △이종대① △이진우①
△이충식① △이태환① △이희도①
△임광주① △임종두① △임진택①
△장기남① △장덕신① △장덕원①
△장무현① △장병규① △장세진①
△장종환① △장병문① △장영기①
△전영원① △전정수① △정 용①
△정수현① △정재택① △정지택①
△정찬인① △정대욱① △정대웅①
△정현희① △정재수① △조상호①
△유영호① △조하국① △조현환①
△주경모① △차대근① △채경석①
△채현원① △최남수① △최병태①
△최준환① △최영주① △최한기①
△추수욱① △한덕수① △한도형①
△한병희① △홍순기① △홍영국①
△홍준기① △홍규택① △홍동규①
◆**상필대** △김경애① △김기영①
△박석환① △박윤경① △손인화①
△여의주① △염병순① △유승욱①
△유정호① △이보숙① △김정숙①
△정영선① △정태숙① △정해자①
△전경환① △허병희①
◆**우대** △김두연① △구본훈①
△김경환① △김계범① △김민영①
△김병환① △김민식① △김본원①
△김진성① △김용팔① △김인호①
△김진구① △김정수① △김홍수①
△나기식① △나병목① △박영찬①
△박희철① △박옥순① △박충기①
△박세준① △신은은① △신현정①
△심광호① △유희만① △유화중①
△이기주① △이도필① △이문성①
△이서호① △이수정① △이규진①
△이인섭① △장 영① △장치훈①
△조병태① △지차호① △최병일①
△최병조① △최수호①
◆**우대** △김 건① △강석진①
△공영석① △공영은① △권현욱①
△김기원① △김기환① △김근혁①
△김기철① △김길수① △김대원①
△김병기① △김상수① △김상조①
△김경수① △김영광① △김영미①
△김기성① △김우철① △김인철①
△김정호① △김대근① △남기동①
△노상복① △류한호① △문종대①
△문원일① △박경태① △박노상①
△박기남① △박승규① △박승무①
△박준호① △박정서① △박태동①
△박호철① △배영일① △박종철①
△서성수① △서순철① △손선일①
△손영선① △손영선① △손정식①
△송상성① △이선석① △이선영①
△신하용① △심규정① △안병욱①
△안승호① △염영은① △오성환①
△오연준① △우종근① △원용환①
△유 연① △유도형① △유태대①
△윤도환① △윤문태① △윤병길①
△윤용준① △이만재① △이명길①
△이민준① △이성원① △이승기①
△이영태① △이영연① △이영희①
△이재환① △이종구① △이주영①
△이진기① △이현준① △이정호①
△이희운① △임경택① △임성모①
△정대환① △정덕기① △정인수①

△전정수① △정대식① △조경일①
△조기창① △조대규① △조영준①
△조용현① △조우열① △조윤호①
△최기현① △최진희① △최규택①
△최동재① △최순만① △최진근①
△최진석① △최하배① △최형근①
△한영희① △허 배① △허 상①
△허명권① △홍봉자① △황성주①
◆**우대** △강덕원① △김성삼①
△김재미① △김현식① △김형숙①
△남명자① △노완자① △민희경①
△백원정① △백정삼① △손국인①
△송지경① △신성희① △안종진①
△유기현① △이동남① △이문정①
△이병욱① △이오규① △이유영①
△이재숙① △이주경① △이정희①
△이현자① △임재일① △정재홍①
△전민숙① △전영희① △정홍자①
△조운조① △최문진① △최보금①
△최준호①
◆**우대** △강세운① △강진영①
△강진희① △강형철① △강형운①
△강희중① △고영배① △고원섭①
△고원섭① △고원섭① △구정철①
△권영현① △김 윤① △김근식①
△김광호① △김규용① △김규태①
△김우영① △김기정① △김동은①
△김병석① △김병준① △김병국①
△김상근① △김성희① △김영태①
△김영태① △김영락① △김우근①
△김우호① △김재면① △김재원①
△김정구① △김종구① △김종수①
△김진구① △김진호① △김철우①
△김현집① △김형묵① △김형주①
△김환기① △노 민① △노문진①
△노상권① △맹국영① △민정원①
△박정호① △박정현① △박성용①
△박상훈① △박세용① △박영수①
△박우영① △박인원① △박지영①
△박주배① △박찬우① △박찬일①
△박종환① △박조진① △박나현①
△백운집① △배대태① △서현원①
△서정우① △서상현① △서봉기①
△송영철① △송기훈① △송익삼①
△신기철① △신동호① △신명우①
△신상진① △이혜리① △심갑섭①
△심용석① △안재환① △안부영①
△안영식① △오경규① △우성일①
△위원량① △유병훈① △유세화①
△유정호① △유정현① △유왕성①
△유지문① △유현덕① △윤경애①
△윤광선① △유규갑① △유세희①
△유성준① △유병국① △이갑노①
△이강진① △이건용① △이계평①
△이관희① △이도영① △이도희①
△이동철① △이동호① △이봉화①
△이상곤① △이순탁① △이순형①
△이유국① △이원기① △이원수①
△이의용① △이원진① △이정길①
△이준근① △이진용① △이진희①
△이진호① △이형진① △이홍규①
△임승운① △임대환① △정동원①
△정수영① △정하용① △정경태①
△정규병① △정동철① △정병희①
△정용삼① △정정성① △조성태①
△조영배① △조문국① △조환구①
△주근원① △주재식① △진용현①
△채진기① △차정환① △최 윤①
△최국진① △최복식① △최유득①
△최진상① △최정운① △최홍동①
△최해동① △최정훈① △한규갑①

△한덕용① △한민희① △한병재①
△한시영① △한민경① △하병환①
△형성민① △홍순수① △홍승인①
△홍영희① △홍영철① △홍자희①
△홍정근① △홍백규① △황도영①
△황순욱①
◆**우대** △강진구① △구정수①
△김계중① △김관식① △김광민①
△김규진① △김기국① △김성근①
△김진숙① △김우성① △김인수①
△김정규① △김정자① △김태의①
△김병일① △김홍식① △김홍식①
△남승우① △남영욱① △라운영①
△문복강① △문영환① △문재배①
△박영길① △박진우① △박영운①
△방수남① △백기석① △변기정①
△송희준① △안정일① △조우열①
△오기돈① △유병도① △유영세①
△유리영① △유창환① △이금룡①
△이민선① △이병우① △이서형①
△이수구① △이용오① △이용오①
△이의용① △이지희① △이진근①
△이형구① △임민식① △임성수①
△임준호① △임정호① △임찬용①
△임철중① △전정희① △정박민①
△정원용① △정하익① △조성복①
△조진호① △조영환① △조주환①
△주영숙① △최낙준① △최석근①
△최승은① △최준은① △하상진①
△허준구① △황 준① △황의강①
△황해운①
◆**우대** △김희경① △고영일①
△권혁길① △김석우① △김성득①
△김용근① △김웅진① △김재중①
△김정규① △김민기① △문두길①
△박기준① △박복남① △박용우①
△박준철① △박진우① △박대근①
△변정환① △손정호① △손정환①
△안두택① △양일서① △오문영①
△유영철① △유정현① △유국경①
△이병갑① △이석연① △이수형①
△이시문① △이정하① △이은기①
△이재봉① △이재희① △이정환①
△이정재① △임대원① △임병민①
△임우택① △임정수① △조기환①
△정원일① △조우정① △조우환①
△조재준① △조대현① △지홍수①
△최원희① △한진준① △한희석①
◆**우대** △고성삼① △김한준①
△김홍식① △김영희① △양희석①
△이기현① △이진하①
◆**우대** △김정동① △김정희①
△오정준① △오정준① △이범기①
△장석민① △최상민①
◆**우대** △권영현① △김남준①
△김병환① △김정호① △김준진①
△문인용① △박일영① △박희서①
△송달국① △안정환① △이기남①
△이승근① △이영남① △정희곤①
△최상준① △홍수정①
◆**우대** △송정호① △안석대①
△이원성① △이재준① △정덕정①
◆**우대** △김기도① △김민기①
△김태문① △김희철① △염정식①
△이명희① △조용철① △황우관①
◆**우대** △전기성① △권문용①
△김경덕① △김성규① △김인기①
△김정일① △김정호① △노익숙①
△박상진① △박정환① △박상수①
△양석호① △오영국① △유국룡①
△이석암① △이서경① △이영태①

△임종삼① △정영섭① △정우택①
△조한우① △주병덕① △차정규①
△천홍철① △최규택① △최성철①
△최창기① △최운자① △하남식①
△현성수①
◆**우대** △권 원① △김경운①
△김배원① △박봉우① △박종일①
△정덕우① △정병환① △정안일①
△홍성표① △황해태①
◆**우대** △강병희① △고희선①
△곽인구① △권용환① △김교철①
△김기용① △김석현① △김세태①
△김삼배① △김영태① △김영수①
△김영일① △김영진① △김영철①
△김이원① △김현수① △김해삼①
△김희관① △남준철① △민정관①
△박수현① △박정일① △박우열①
△박재준① △박정훈① △박진수①
△박현수① △서명환① △서영용①
△서영환① △송창수① △송병환①
△송장식① △신현규① △신우영①
△안용석① △오병태① △유병희①
△유정철① △이동훈① △이성복①
△이세라① △이영표① △이정국①
△이주환① △이준근① △이현구①
△장기호① △정건택① △정광환①
△조진호① △조영환① △조주환①
△조대현① △조준환① △조현재①
△진준배① △최병희① △최승우①
△최호경① △황복환①
◆**우대** △김정철① △김복수①
△김병영① △강명호① △강승우①
△박문연① △권영철① △김기원①
△김동하① △김병환① △김서근①
△김성길① △김수기① △김원섭①
△김윤중① △김재우① △김대환①
△김우진① △남정호① △문 호①
△박승우① △서영식① △손현숙①
△안정환① △안 병① △양공진①
△유영식① △원종준① △우재준①
△윤명수① △이성남① △이영기①
△이희현① △이종진① △이종환①
△전재훈① △정승일① △조성현①
△최진용① △최창식① △허광운①
△하태주① △한승국① △현정환①
△현창호①
◆**우대** △강영욱① △곽기영①
△권상문① △김 철① △김진진①
△김진식① △김태원① △김필용①
△노화찬① △문용식① △박상민①
△박상하① △박찬국① △서천교①
△손일조① △신승우① △안재준①
△오정숙① △윤원호① △이덕수①
△이영진① △이영태① △이영환①
△이정주① △이종근① △이진영①
△전 현① △정운기① △주영준①
△진재철① △최순환① △한병수①
△하위규① △황기성① △황상수①
◆**우대** △박복식① △박문명①
△송승일① △안우근① △윤흥기①
△이 명① △이계영① △이상철①
△이영호① △이종환①
◆**우대** △강광우① △김덕우①
△김동일① △김수근① △김승규①
△김영호① △김정우① △김종호①
△김태국① △김희철① △박진동①
△박민길① △박종민① △배기봉①
△서선호① △송승우① △김정호①
△오인환① △우경선① △이래원①
△이계영① △이정철① △황용연①

◆**우대** △유해수①
◆**우대** △APC △패우신① △김복수①
△김정국① △김희태① △정원영①
△송기호① △이문정① △이종배①
△이정호① △정선현① △조성철①
△최병희① △한준조①
◆**우대** △김정자① △강병일①
△권기진① △권차남① △권현민①
△김 현① △김강희① △김영식①
△김진문① △류희근① △박무형①
△박상동① △박원희① △서관석①
△서원영① △임우진① △오국진①
△오창목① △윤대보① △이공은①
△이순남① △이재광① △최희태①
△이창환① △이철희① △이충섭①
△이태수① △정성호① △정창기①
△정정우① △정혜숙① △주영진①
△진선두① △한 용①
◆**우대** △김정환① △신기창①
△신서현① △황기우① △정강식①
◆**우대** △AC △우호환① △김동구①
△김일중① △김정현① △김태희①
△김현식① △류진국① △문명연①
△민정훈① △김필규① △서정원①
△서희석① △신병근① △유병환①
△윤재영① △이정희① △이일모①
△이종환① △정현호① △정희자①
△조장구① △최유섭① △최진식①
△황기환①
◆**우대** △AFB △김명호① △이동락①
△이현주① △정성모① △허 찬①
◆**우대** △AMPFI △박병남① △최규홍①
△한기영①
◆**우대** △ACFPM △김영환①
◆**우대** △GLP △강덕수① △김정진①
△권오성① △김 철① △김정식①
△박기태① △박재길① △염용삼①
△유영덕① △이성필① △이성취①
△이원철① △정용준① △정종환①

일 반

◆**우대** △김기희① △김동규①
△김대환① △김정국① △김선아①
△김재철① △김주일① △김혜정①
△류동현① △류정현① △최진호①
△박병용① △박상준① △박종현①
△박지봉① △박재권① △박승호①
△서선영① △서해태① △서 명①
△소대봉① △정정현① △김희자①
△송자준① △양동희① △문대근①
△윤호우① △윤희경① △이 건①
△이규성① △이기희① △이동원①
△이성원① △이성수① △이성섭①
△이승훈① △이영민① △김운희①
△이정국① △이종수① △임기기①
△임준근① △장성현① △정운성①
△정재현① △정용모① △정재문①
△정혜경① △정현호① △최희환①
△최기용① △주희영① △허나윤①
△허영영① △홍현호① △황기환①
◆**우대** △강병일① △고영진①
△고성일① △김정호① △김정호①
△김정수① △김기수① △김광덕①
△김덕인① △김병조① △김봉진①
△김서유① △김정호① △김정현①
△김승희① △김영광① △김영성①
△김용수① △김영동① △김정영①
△김정영① △김재환① △김지성①
△김진기① △김진기① △김진근①
△노영희① △노문진① △박민택①

△김창철¹⁵ △김철환¹⁵ △김현오¹⁵
△김홍배¹⁶ △김홍배¹⁵ △노태홍¹⁵
△민병태¹⁶ △민병환¹⁵ △박경수¹⁵
△박광철¹⁵ △박대룡¹⁵ △박동순¹⁵
△박봉희¹⁵ △박승규¹⁵ △박완구¹⁵
△박익구¹⁵ △박정열¹⁵ △박정진¹⁵
△박종달¹⁵ △박진희¹⁵ △배준섭¹⁵
△배지근¹⁵ △배현영¹⁵ △서규환¹⁵
△서동욱¹⁵ △서영교¹⁵ △서재진¹⁵
△서준호¹⁵ △서지호¹⁴ △설동욱¹⁵
△성기호¹⁵ △신민호¹⁵ △소재수¹⁵
△송규관¹⁵ △송송호¹⁵ △송재국¹⁵
△신광규¹⁵ △신기범¹⁵ △신승환¹⁵
△신병호¹⁵ △신인수¹⁵ △신중현¹⁵
△신필철¹⁵ △신병남¹⁵ △신재철¹⁵
△심성주¹⁵ △심형섭¹⁵ △심병식¹⁵
△안영목¹⁵ △양재하¹⁵ △염치섭¹⁵
△염영구¹⁵ △여종복¹⁵ △오기환¹⁵
△오우현¹⁵ △오정현¹⁵ △오진수¹⁵
△유대진¹⁵ △유명희¹⁵ △유창복¹⁵
△유재희¹⁵ △유준호¹⁵ △유희철¹⁵
△윤 효¹⁵ △윤봉준¹⁵ △윤상규¹⁵
△윤석환¹⁵ △윤승두¹⁴ △윤여현¹⁵
△윤정희¹⁵ △윤준여¹⁵ △이건재¹⁵
△이경도¹⁵ △이계식¹⁵ △이규홍¹⁵
△이권모¹⁵ △이기산¹⁵ △이대훈¹⁵
△이동수¹⁵ △이동훈¹⁵ △이만근¹⁵
△이만식¹⁵ △이명기¹⁵ △이병국¹⁵
△이상진¹⁵ △이상찬¹⁵ △이성화¹⁵
△이승은¹⁵ △이시하¹⁵ △이원규¹⁵
△이방희¹⁵ △이정훈¹⁵ △이정철¹⁵
△이태종¹⁵ △이필곤¹⁵ △이한울¹⁵
△이해익¹⁵ △이홍근¹⁵ △인수환¹⁵
△임지순¹⁵ △임정현¹⁵ △장동국¹⁵
△장기수¹⁵ △전병복¹⁵ △전성희¹⁵
△전영수¹⁵ △전재승¹⁵ △전정기¹⁵
△전정모¹⁵ △전기원¹⁵ △전덕희¹⁵
△정문화¹⁵ △정상용¹⁵ △정상진¹⁵
△정성태¹⁵ △정재철¹⁵ △정조훈¹⁵
△정하규¹⁵ △정해운¹⁵ △조 원¹⁵
△조규태¹⁵ △조문제¹⁵ △조승철¹⁵
△조용희¹⁵ △조현준¹⁵ △조홍진¹⁵
△진갑길¹⁵ △최기우¹⁵ △최대환¹⁵
△최병환¹⁵ △최석철¹⁵ △최수영¹⁵
△최인희¹⁵ △최민환¹⁵ △최재혁¹⁵
△최진민¹⁵ △최정국¹⁵ △하진수¹⁵
△한상현¹⁵ △한정환¹⁵ △한일영¹⁵
△한오석¹⁵ △홍기우¹⁵ △홍성표¹⁵
△홍순태¹⁵ △홍순태¹⁵ △홍하현¹⁵
◆성철대 김갑배¹⁷ 김갑호¹⁵
△류국영¹⁵ △민병환¹⁵ △민수진¹⁵
△박수인¹⁷ △박주희¹⁵ △서병숙¹⁵
△서정훈¹⁵ △이재국¹⁷ △안영희¹⁵
△오광숙¹⁵ △오현숙¹⁵ △윤장환¹⁵
△이신영¹⁵ △이영희¹⁵ △이용호¹⁷
△이창배¹⁵ △임정현¹⁵ △전영숙¹⁵
△정인옥¹⁵ △조혜경¹⁵ △조혜지¹⁵
△정혜진¹⁵
◆수미대 △강석주¹⁵ △강정환¹⁵
△고익식¹⁵ △구희영¹⁵ △권순철¹⁵
△권안식¹⁵ △김기재¹⁵ △김세은¹⁵
△김재하¹⁵ △김재하¹⁵ △김주성¹⁵
△김진영¹⁵ △김갑배¹⁷ △김정희¹⁵
△최해권¹⁵ △명승수¹⁵ △박기환¹⁵
△박노극¹⁵ △박만택¹⁵ △박옥복¹⁵
△박준호¹⁵ △박문기¹⁵ △서광일¹⁵
△송남춘¹⁵ △신문환¹⁵ △신영규¹⁵
△서리경¹⁵ △유인관¹⁵ △유한상¹⁵
△윤영희¹⁵ △이재국¹⁷ △이정희¹⁵
△이화희¹⁵ △이진용¹⁵ △이필수¹⁵
△임정숙¹⁵ △전은진¹⁵ △정영식¹⁵

총 계 : 897,998,791원